

시민의

C I T I Z E N D U K H E E

각본 / 연출 박영주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1. 오프닝 크레딧

썩여있는 한국 여권들, 핸드폰들, 두들겨 맞는 사람들, 캠코더의 빨간 불빛.
캠코더 화면에는 얼굴에 멍이 든 **재민(28세, 남)**이
잔뜩 위축된 모습으로 서 있다.

소리 : 이름!

재민 : 권, 권재민입니다. 스물여덟살. 서울 관악구 관천로 8길에 살고 있고, 오늘,
2015년 4월 3일부로 성실히 일할 것을 맹세합니다. 만약에 도망칠 경우에
는... (울먹거리는)

소리 : 빨리 안 해?!

재민 : (울먹이며) 나 대신 가족들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고... 이에 동의합니다.

캠코더 화면 빠르게 분할되며
60여명의 직원들이 재민처럼 동의한다고 말하는 모습이 보인다.
화면 바뀌며 번쩍거리는 복사기 불빛,
위잉 위잉 콧속콧속! 복사된 종이에 은 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적혀있다.
이름 김덕희 나이 39세 예금 계좌, 대출이력 등이 보이고
그 위로 전화벨 소리, 실제 보이스피싱하는 음성들이 섞여 들리기 시작한다.
돈을 보내라며 끈질기게 설득하는 음성부터
당신 자식을 납치했다는 협박 음성,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화면 암전.
잠시 고요하다가 다시 울리는 전화벨.

덕희 : (소리/ 일하다가 전화를 받아 헐떡이며) 여보세요?

재민 : (소리) 안녕하세요, 김덕희씨 맞으시죠?

덕희 : (소리) 예... 근데 누구세요?

재민 : (소리) 저 화성은행 손진영 대리데요.

덕희 : (소리, 잘 안들리고) 누구라고요?

재민 : (큰 소리로) 손진영 대리요! 지난번에 대출하러 저희 은행 오셨잖아요.

덕희 : (소리) 아. 아 예.

재민 : (소리)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 나와서 전화 드렸어요. 햇살론이
라고 들어보셨죠?

덕희 : (소리) 난 뭐 대출 자격이 안 된다면서, 갑자기 그게 왜 돼요?

재민 : (소리) 하하.. 저번 꺼랑은 대출 상품 자체가 다른 거고요. 이거는 햇살론이
라고 정부에서 저소득층 맞춤으로 나왔거든요.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데, 이게 은행에 다 풀려서 저희 은행에서도 먼저 대출 신청하셨다가 아쉽게
안 된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드리고 있거든요.

덕희 : (소리) ... 그럼 나도 대출되는 거예요?

재민 : (소리) 하하.. 은행이 바로 그렇게 대출되진 않고요. 우선, 몇 가지 확인부터 할게요. 김덕희씨 본인 맞으시죠?

덕희 : (소리) 네, 맞아요.

재민 : (소리) 지난번에 대출 이천만원 신청하셨고요?

덕희 : (소리, 주변 소음에 잘 안 들리고) 네? 뭐라고요?

재민 : (소리) 이천만원 대출 신청요!

덕희 : (소리) 네! 맞아요! 이천만원! 이천만원 신청했어요!

2. 화성은행 앞 도로. 낮

도로 한구석에서 시끄럽게 공사가 한창이다. 그 위로 타이틀.

“시민 덕희”

공사현장 뒤로 썰매- 달리는 세탁공장 탐차.

경기도 화성
2015년 6월 11일

탐차, 거칠게 달리다가 끼이이익!! 선다.
 뼈딱하게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덕희(39세, 여).
 세탁 공장 유니폼 차림에 목 보호대가 눈에 띈다.
 덕희, 횡단보도로 뛰어가는데 신호등이 고장나있고...
 다급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에잇!
 그대로 차들이 썽썽 지나다니는 횡단보도를 건넌다.
 땡! 뻘아양! 클랙슨을 울리며 위협하는 차들.
 덕희, 아슬아슬하게 차를 피해가는데
 그 순간, 차 한 대가 덕희에게 달려들고.....! 끼이이익!!
 뒤늦게 차를 세운 운전자, 놀라 허겁지겁 차에서 내린다.
 보면, 다행히 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있다.

운전자 : 야 이 씨발 미친년아!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덕희 : (정신 없고, 미안하다는 뜻으로 손을 드는데)

운전자 : 나가 죽을려면 혼자 나가 죽을 것이지! 어후 씨발! 씨발년이! 미친년이 사람을 놀래키고! 에이, 재수 없어.

덕희 : (가려다가 운전자에게 다가가는)

운전자 : 뭐? 뭐? 어찌라고?!

덕희 : (코 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놀래켜서 미안하다, 이 좃만아.

운전자 : !!!

덕희 : (휙 가버리는)

3. 화성은행 안. 낮

허겁지겁 뛰어 들어오는 덕희.

은행 안을 휘 둘러보는데 창구 직원들은 모두 고객을 응대 중이다.

가까운 창구로 돌진하는 덕희.

덕희 : (숨을 헐떡이며) 손대리... 헉헉... 손대리 좀 불러줘요.

손님 : (야리며) 사람이 하고 있는데... 쫓.

직원 1 : 여기 고객님의 먼저 오셔서, 일단 번호표 뽑으시구,

덕희 : (말 끊으며) 급해서 그래요! 손대리만 좀 불러줘요. 응? 연락도 안 되고, 나 진짜 접시물 받게 생겼어요...!

직원 2 : (다가와) 무슨 일이야?

덕희, 마음이 급해 에이씨! 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

직원 1 : (말리며) 여긴 들어오시면 안 돼요.

덕희 : 손대리만 좀 불러달라니까...! 손대리! 손진영대리!

청원경찰까지 뛰어와 덕희를 말린다.

덕희 : 안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테니까 손대리만 좀...!

여직원 : ... 제가 손진영인데 누구세요?

덕희 : (황당) 아니 언니 말고...! 남자 있잖아요! 남자! 남자 손진영!

여직원 : 남자는 없는데... 저희 지점 맞으세요?

덕희 : (핸드폰 보여주며) 여기 사원증! 봐요! 동탄동점. 계속 통화를 했다니까, 내가 뭐 ARS 한 줄 알아요?!

여직원 : 혹시 돈 보내셨어요?

덕희 : 보냈죠! 보내라면서요. 대출 서류랑 빨리 넘겨야 된다고...!

여직원 : (허걱) 저희는 고객님의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덕희 : (밍고 싶지 않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돈 달라구, 여기 계좌로 빨리 보내라구...! (하다가)

순간, 자신이 사기 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덕희.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더니 과호흡 증상을 일으킨다.

여직원 : (봉지를 쥐어주며) 숨 쉬세요. 숨!

직원 1 : 경찰. 경찰 부를게요!

직원 2 : 119부터 불러! 119!

덕희, 숨을 헐떡이다 점점 정신이 아득해지고...

우왕좌왕하는 직원들의 목소리와 교차되어

보이스피싱 당했던 순간들의 소리들이 생생히 들리기 시작한다.

재민 : (소리) 연이자도 훨씬 저렴하고
재민 : (소리) 아 진짜 너무 아까운데..! 정말 빌릴데 없으세요?
재민 : (소리) 저희 부모님도 세탁소하셔서 남일 같지가 않아요.
재민 : (소리) 진짜예요! 오천만원이 나온다니까요!

겨우 숨을 진정시키는 덕희.

여직원 : 괜찮으세요?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덕희 : (고개를 들며) ... 이 개새끼... 어떻게 잡아요?

4. 화성경찰서 지능팀 안. 낮

정수기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덕희.
종이컵을 구겨버리고는 구석자리로 가서 앉는다.
지능팀의 세 자리는 비어있고,
형사 1은 동물학대혐의로 잡혀온 남자를 취조하고 있으며
팀장(50대, 남)과 형사2(40대, 남)가 외사계 직원과 대화 중이다.

팀장 : 아이 우리도 좀 그런데...
외사계 : 부탁 좀 드릴게요, 팀장님. 사이즈가 작으면 우리끼리 하는데 사이즈가 커서 그러죠.
형사 2 : (두꺼운 서류에 사건번호 도장을 찍으며) 자꾸 도와달라 하지마. 우리가 불우이웃인데 누굴 도와.
외사계 : (눈치를 주며) 야... 같은 식구끼리. 팀장님, 불체자 오십명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덕희, 의자에 몸을 기댔다가 뺏다가 다리를 떨다가
결국 진술서를 가지고 팀장에게로 저벅저벅 간다.

덕희 : (진술서를 들이밀며) 이거 쓰라는 거 다 썼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팀장 : (형사 2에게) 애들 어디래?
형사 2 : 다와간다고 했는데, 전화해볼게요. (전화하는데)
외사계 : (팀장에게) 팀장님, 팀장님만 믿겠습니다. (나가는)
형사 2 : 안 받는데요?

그때, 박형사(40대, 남)와 신형사(30대, 남), 형사 3(30대, 남)이 들어온다.

팀장 : 저기 오네.
일동 : 다녀왔습니다!

머칠 밤을 샀는지 꼬질꼬질한 차림의 박형사를 보는 덕희.

형사 2 : 오셨어요? 왔어?

팀장 : 다들 고생했어! 요 앞에 목욕탕 가서 몸 좀 풀어. 시원하게~ 응?

박형사 : 목욕탕은 무슨 목욕탕이에요. 집에 가서 자야지. 지금 욕조에 몸 담그면 바로 눈 감기면서 익사예요.

일동, 웃는다.

박형사 : 웃지 말고, 퇴근 준비해. 퇴근 안 할 거야?

팀장 : (팔짱끼고 서 있는 덕희 눈치를 보고) 형식아. 넌 일단 쏙 남아봐.

박형사 : 예? 왜요? 나 왜?

형사 2 : (덕희를 가리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분이예요.

덕희 : (의자에 착석하며) 여기 앉으면 되죠?

박형사 : (하아 한숨 쉬고는 팀장에게 다가가 나지막히) 삼일 밤새 잠복하다 왔는데 너무한 거 아녜요?

팀장 : 그래. 그럼 종현이 보고 이거 하라 그러고, 너는 외사계 지원 나가면 되겠다. 불체자 오십명이라는데 괜찮지?

박형사 : (바로 태도 돌변하며 덕희에게) 피해자분? 진술서는 쓰셨어요?

덕희 : 두시간 전에 다 썼어요. (주면)

박형사, 덕희의 맞은편에 앉는다.

CUT TO :

졸린 눈으로 진술서를 보고 있는 박형사.

덕희는 그런 박형사가 못 미답기만 하고...

박형사 : (커피를 마시며) 보이스피싱 당한 금액이 삼백이십만원...

덕희 : (후우) 다시 보세요.

박형사 : 예? 여기 삼백이십이라고 적혀있는데, 삼백이십...(하다가 놀라며) 삼천이백이예요?! 어후...

덕희 : (창피해 주변을 살피고는) 돈이 좀 많이 급했어요. 급한데 대출해준다니까,

박형사 : (끓으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뭘 믿고 그 큰돈을 그렇게 덜컥 보내셨어요? 참...

덕희, 대답 대신 조용히 목 보호대를 풀다.

그러자 아직 다 낫지 않은 화상 흉터가 드러난다.

덕희 : 집에 불 나봤어요? 전재산이 다 탔는데 보험도 안 돼, 생계는 끊겨, 길거리
에 나왔어 봤어요?

박형사 : ... 저도 안타까워서 한 말이에요.
 덕희 : 썩돈 삼천이백 날린 나보다 더요?
 박형사 : (할 말 없고)
 덕희 : 형사님, 난 시간도 없구요. 안타까워하고 고뇌하고 그렇게 우아 떨 형편도 아니에요. 그니까 다 집어치우구, 내 돈, 어떻게 하면 내 돈 찾는지 그거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대리, 그 새끼 잡을 수 있는 거죠?
 박형사 : (굽적굽적) 일단 수사할 거고, 이거 계좌 추적하고 하면 시간이 걸려요.
 덕희 : 얼마나요?
 박형사 : 그건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덕희 : 끝이에요?
 박형사 : 네. 조사 끝났습니다. 집에 가셔도 돼요.
 덕희 : (머뭇머뭇 꼼지락꼼지락) ... 한달 안에는 잡을 수 있죠? 잡아야 되는데...
 박형사 : 연락 드릴게요.
 덕희 : (기가 죽어 가는데)
 박형사 : 저기,
 덕희 : (반가워 돌아보면) 네!
 박형사 :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실망하는 덕희.

5. 불 탄 세탁소 안. 해질무렵

유리는 다 깨지고 검게 다 탄 세탁소 안으로 들어오는 덕희.
 검게 타버린 다리미판을 애뜻하게 쓰다듬는다.

6. 동네 놀이방 문앞. 저녁

엄마야!! 하며 달려오는 민지(7세, 여)와 훈이(6세, 남)

덕희 :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는) 아구구. 내 새끼들. 잘 놀았어?
 민지 : 왜 늦게 와썬!
 덕희 : (끌어안은 채 몸을 흔들며) 미안해. 미안.
 훈이 : 엄마 썩썩이네? 찾아썬?
 덕희 : 썩썩이? 썬! (까맣게 탄 자동차 장난감을 꺼내는)
 훈이 : (좋아하다가 표정이 애매해지는) 원래 빨간색인데. 왜 까만색 썬어?
 덕희 : 아... 썩썩이 썬텐했대. 왜? 맘에 안 들어?
 훈이 : 원래 빨간색인데...
 민지 : (휙 빼앗으며) 우와! 빨간색보다 이게 훨씬 멋있다! 나 할래!
 훈이 : (눈빛이 돌변해 빼앗으며) 내 꺼야! 썬!

덕희, 민지에게 윙크를 하자 민지도 따라 윙크한다.

이모 : (아이들 가방을 챙겨주며) 가방 안 가져갈거야?
 덕희 : 또 늦어서 면목이 없네. ㅎㅎ... 아 이거. (종이가방을 건네주며) 내가 했지 만 진짜 감쪽같아.
 이모 : 응응. 고마워. (대충 꺼내보며) 잘됐네 진짜.
 덕희 : 기술자가 괜히 기술자야? (하다가 입고 있는 옷 보고) 이것도 손 좀 봐줄 까? 크지?
 이모 : 됐어. 그냥 입음 돼.
 덕희 : 줄이면 훨씬 이쁠 거 같은데. 웰케 큰 걸 샀어?
 이모 : (난처한 얼굴인데) 됐다니까...! 아니 자기 사정 아는데 나도 눈치가 좀 보이 네. 우리 놀이방비가 비싼 것도 아니구. 한두명 봐주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나는 왜 안 봐주냐 그러고.
 덕희 : (애교 떨며) ㅎㅎㅎ. 이모. 나 좀 살려줘. 응?
 이모 : (약간 정색) 야.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 그런 소리 하지마.
 덕희 : (սսսս하지만 애써) ... 미안해요, 미안. 내가 눈치가 좀 없어. (애들 데리고 가며) 자 가자. 가자. (가다가 돌아보며) 아 그 옷은 나중에라도 수선하고 싶 으면 (전화 제스처) 때려요. 나 진짜 얼마 안 걸리니까. ㅎㅎ.

가는 덕희와 아이들, 이모의 마음도 좋지 않고...

7. 달리는 탐차 안. 밤

피곤한 얼굴로 운전하는 덕희.
 아이들은 조수석에 까무룩 잠이 들어있고...

8. 세탁공장 주차장. 밤

덕희가 모는 세탁공장 탐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선다.

9. 세탁공장. 밤

으스스한 분위기의 공장 안.
 덕희, 한손에는 짐가방을, 한손에는 훈이를 안고 있고
 민지가 덕희의 다리에 딱 붙어 걸어가고 있다.

민지 : (뽀로로 자동차구조대 노래를 부르며) 파란 자동차가 뽀용뽀용. 내가 먼저 가야해요 뽀용뽀용.
 덕희 : (같이 부르며) 나쁜 사람 나타나면 뽀용뽀용.
 민지 : 엄마... 무서워...
 덕희 : 뭐가 무서워. 엄마 일하는텐데.
 민지 : 궁전 가서 자면 안 돼? 거기 목욕하는데도 있고, 침대도 있고, 우리 집보다 좋은데!

덕희 : 애기했잖아. 궁전 이제 못 간다구.
 민지 : 나쁜 아저씨 때때?
 덕희 : 응.
 민지 : 그럼 우리 계속 여기 살아?
 덕희 : 아니이. 잠깐만. 나쁜 아저씨 잡아서 엄마 돈 찾을 때까지만.
 민지 : 몇 밤 자면 잡는데? 세 밤? 네 밤?

10. 세탁공장 라커룸. 밤

돗자리 위에 곤히 잠든 민지와 훈이.
 덕희는 각종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고 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남은 돈은 3만원가량...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하려다가 차마 못 하는 덕희.

덕희 : 구걸도 낯짝이 있어야 하지. 후우...

그때, 기어가는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으헉! 놀라는 덕희.
 재빨리 신발을 주워 바퀴벌레를 퍽! 퍽! 때리고...
 그 소리에 훈이가 우웅하며 뒤척인다.

덕희 : (훈이 이마에 입 맞추며 토닥이는) 엄마 여겼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잠든 아이들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덕희의 모습.
 그 위로 드르륵! 소리 연결되며

11. 중국 칭다오 콜센터 숙소 앞. 아침

닫혀있던 철창문이 여는 덩치 1.

덩치 1 : 전원 기상! 1층으로 내려가! 빨리 빨리!

우르르 나오는 조직원들 사이 부스스한 얼굴의 재민이 보인다.
 그 위로 자막 :

중국 칭다오
 2015년 6월 30일

12. 중국 칭다오 콜센터 정보팀. 낮

대여섯대의 컴퓨터로 사이트를 해킹하고 있는 사무실 안.
 덩치 1은 복사된 A4 용지를 카트에 가득 실어 나간다.

13. 중국 칭다오 콜센터 복도 + 대출팀. 낮

카트를 끌고 협박팀 사무실을 지나는 덩치 1.
협박팀에서는 야구배트를 휘두르며 아악 아악! 비명소리를 낸다.
코너를 돌아 50여개의 책상이 뻗뻗하게 놓여있는 대출팀 사무실이 보인다.
특이하게도 한구석에 미싱기와 가죽원단들이 널브러져 있고,
직원들은 책상에 앉아 헤드셋을 쓰고 열띠게 전화 중이다.
덩치 2, 3은 야구배트를 들고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
대우는 사무실 가운데 빼딱하게 앉아서 DB 봉치를 휘리릭 훑어보고...
덩치1이 카트를 끌고 다니며 DB 자료를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그 가운데 열띠게 전화 중인 재민.

재민 : 대출이 문제가 아니고, 이자가 문제죠. 이거 왜 하시는데요? 돈 급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이자를 비싸게 내는 건 호구예요. 호구!

그때, 퍽! 퍽!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면
대우가 직원 한 명을 야구배트로 때리고 있다.

대우 : 실적도 젤 떨어지는 새끼가! 너 같은 새끼 때때 나까지 욕을 먹잖아! 밥 값도 못하는 새끼!!

재민, 놀랐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추스르며 통화를 계속한다.

재민 : 네, 네, 다들 많이 해요. 당연하죠! 나라도 대환 대출한다니까요!

궁정적인 대답과는 달리 어두운 재민의 얼굴.

14. 중국 칭다오 콜센터 앞. 새벽

비교적 평범한 3층짜리 콜센터 건물의 모습.
새벽 시간이라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고 한산하다.

15. 중국 칭다오 콜센터 숙소 거실. 새벽

모두 잠들었는지 조용하다.
그때, 철창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재민이 나온다.

CUT TO :

감시 중인 덩치 1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다.
재민, 창문 쪽으로 가서 귀퉁이의 창살을 뜯어낸다.
3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높이가 아찔하고...!

16. 중국 청다오 콜센터 외벽. 새벽

콜센터 주변에 보이는 ‘春和樓(춘화루)’ 네온사인.
재민은 3층에서부터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내려오고 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듯 아슬아슬한 모습.
그때, 재민의 발이 미끄러지며 으헉! 하고 떨어질 뻔하는데
다행히 곧바로 벽을 다시 붙잡는 재민.
재민, 2층 테라스를 지나다가 창문을 힐끗 보는데... 놀란 얼굴이다.

17. 중국 청다오 콜센터 사무실. 새벽

런닝과 팬티만 입은 경찰(29세, 남)과 친구(30세, 남)가
대우와 첸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고 있고,
뒤에는 병거지 모자를 쓴 총책(나이미상, 남)이 햄버거를 먹고 있다.

대우 : (친구를 일으키는) 야. 야. 정신 차려. 똑바로 앉아.
첸 : (경찰을 일으키며, 중국말로) 앉아.
경찰 : (첸에게 엉기며) ... 후후...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친구 : (대우를 꼬라본다)
대우 : (때리며) 첫날 내가 다 얘기해줬잖아. 어? 진짜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너 주민번호도 알고, 사는데도 알고, 누구랑 사는지도 다 아는 데, 한국으로 토껴도 너 하나 조지는 거 일도 아냐.
경찰 : (울기만) ... 후후...
친구 : (얼굴을 때리는 대우에게 오히려 얼굴을 들이미는)
대우 : 어? 어? 참나. 이게 진짜 뒤질려고...!

그때, 콜라를 쪽쪽 빨아먹고 있던 총책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야구방망이를 들고 친구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갈기더니
눈에 보이는 거 없이 사람을 패기 시작한다.
그 모습에 대우는 헉! 소름끼쳐 하고....
경찰은 죽어나가는 친구를 보며 으아악! 경기를 일으킨다.
그 모습을 창문 밖에서 훑쳐보고 있는 재민, 놀라 눈이 뚱그래지고....
피문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경찰에게 가는 총책.

경찰 : (졸아서) 으후후.... 으후.... 살려주세요... 제발.
총책 : (쭈그리고 앉아 눈을 맞추며) 또 도망칠 거야?
경찰 : (고개를 과하게 흔들며) 절대! 절대! 절대 안 가요! 살려주세요... 제발... 진짜 열심히 전화할게요!
대우 : (목을 잡으며) 제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경찰 : (겁에 질려 호박박)
총책 : (일어나며) 됐어.

대우 : 예?
 총책 : 풀어주라고.
 대우 : 풀어요? 진짜?
 총책 : (말없이 서늘하게 쳐다보면)
 대우 : (졸아서 푼다)
 경찰 : (콜록거리는데)
 첸 : (중국말로 총책에게) 차 대기 시킬까요?
 총책 : (중국말로) 그래. 아 그리고! (경찰을 가리키며) 다리 하나는 부러뜨려. .
 첸 : (중국말로) 알겠습니다.
 대우 : (어설픈 중국말로) 다리? (한국말로) 무슨 말이야? 어?

갑자기 첸이 경찰의 다리를 붙잡는다.

경찰 : (어리둥절해 발버둥치며) 왜, 왜 이러세요? 왜...! 으아아악!

첸, 경찰의 다리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총책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는다.
 너털너털해진 경찰의 다리를 보고 입을 틀어막는 재민.

18. 중국 칭다오 콜센터 외벽. 새벽

재민, 베란다 구석에 우웻! 토한다.

19. 중국 칭다오 콜센터 숙소 거실. 새벽

열린 창문으로 다시 올라오는 재민.
 뚫린 창문 너머로 춘화루의 네온사인이 보이는데
 뜯어낸 철창을 다시 끼워 넣는 재민, 절망스러운 얼굴이다.

20. 세탁공장. 낮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 모습.
 덕희도 숙자(40대, 여), 봉림 (40대, 여, 조선족)과 함께 일하는 중이다.
 그때, 텐트에서 민지와 훈이가 몰래 빠져나온다.

덕희 : (호령하며) 민지! 훈! 혼난다!

후다닥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민지와 훈.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는 숙자와 봉림.

숙자 : 너 애들 신경 쓰여서 일할 수 있겠어?

덕희 : 해야지. 어떡해.
 봉림 : 혹시 니 놀이방 비싸서 그라니?
 덕희 : (뜨끔한) 아, 아냐!
 숙자 : 그래, 그건 아니지! 덕희 이제 대출도 받았는데 그 돈이 없겠어!
 덕희 : (սսս) ... 언니, 언니한테 빌린 거...
 숙자 : 천천히 갚어! 아직 돈 들어갈 데 많을 거 아냐.
 봉림 : 그래. 숙자는 술 마실 돈만 있으면 된다.
 숙자 : (봉림의 머리핀을 가리키며) 야. 이런 쓸데없는데 돈 쓰는 것보다 훨 낫거든! 얼마 줬냐? 삼천원?
 봉림 : 이게 어딜봐서 삼천원이니! 백화점 가서 산 거야!

그때, 전화벨이 울리고 덕희, 허둥대며 전화를 받는다.

덕희 : 여보세요? 네. (숙자와 봉림의 눈치를 살피며) 나 잠깐만. (후다닥 뛰어가는)
 아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돼요?

숙자와 봉림은 뛰어가는 덕희를 수상하게 보고...

21. 화성경찰서 지능팀 + 세탁공장 일각. 낮

박형사는 종이박스 신발장에서 슬리퍼를 꺼내 신는다.

박형사 : 역시나 대포통장 대포폰이더라고요. 계좌는 지금 정지를 시켰는데 이미 돈은 다 빠져 나갔구...

세탁공장 일각에서 통화 중인 덕희.

덕희 : 그럼 어떡해요? 내 돈은요?
 박형사 : 돈은 못 찾는다고 봐야죠.
 덕희 : 못 찾는다고요? 안 돼요. 나 찾아야 돼요!
 박형사 : 그렇게 무대뽀로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덕희 : 총책 잡으면 내 돈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형사 : (어이없는) 지금 총책이라고 했어요? 보이스피싱 총책이 무슨 동네 잡범도 아니구.
 덕희 : 인터넷 기사 보니까,
 박형사 : 서울청에서도 일년에 한두 케이스예요. 우리가 보이스피싱 전담반도 아니고, 암튼 총책은 말도 안 되고, 우리는 인출책이라도 잡아보려고 추적을 했는데 그 루트도 지금 끊긴 거거든요. 대포통장 대포폰이라고 했잖아요.
 덕희 : 그래서요?
 박형사 : ... 사실상 수사가 종결됐다고 봐야죠.
 덕희 : 해결이 안 됐는데, 종결을 해요?

박형사 : 수사가 더 이상 진척이 어려우면,
덕희 : 만나서 얘기해요. 내가 당장 서로 갈 테니까 예? 바로 출발해요!

덕희,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린다.

박형사 : 와도 어차피 똑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형사 : 뭐래요?
박형사 : (어이없어 웃으며) 총책 잡아달래. 해외에서 작정하고 사기치는 놈들을 어떻게 잡으라고... 뭘 알아야 말이 통하지. 쫓.

22. 화성시 도로. 낮

거칠게 달리는 세탁공장 탑차.

23. 달리는 탑차 안. 낮

거칠게 운전하는 덕희.

숙자 : (소리) 어디야? 밥 안 먹어?
덕희 : (정신 없고) 어, 어. 나 배 안 고파. 미안한데, 언니, 애들 좀 잠깐만 봐줘.
봉림 : (소리, 전화 빼앗으며) 아이 줘봐. 니 탑차 끌고 나갔니?

그때, 끼어들기를 하는 차 한 대.

덕희 : (뽕뽕 클랙슨을 누르며) 아이씨 저 미친...!
봉림 : (소리) 미친?
덕희 : (헉) 언니, 아냐. 언니한테 한 말이 아니고, (정신없는) 나 지금 너무 정신 없
어. 이따 전화할게.
봉림 : (소리) 빨리 와! 늦게 오면 반장이 또 지랄,

봉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는 덕희.
그러나 곧바로 다시 전화가 올린다.

덕희 : (스피커폰 누르며) 언니! 나 지금 운전 중이라니까,
재민 : (소리) 여보세요? 김덕희 고객님의?
덕희 : (낮익은 목소리에 웬지 불안한) ... 누구세요?
재민 : (소리) 저 화성은행 손진영 대립니다. 손대리.
덕희 : !!!

24. 교차편집 (콜센터 + 차 안)

보이스피싱 업무가 한창인 사무실 안에서
감시하는 대우와 덩치 1, 2의 눈치를 살피며 통화 중인 재민.

재민 : 여보세요? (입을 가리고 속삭이며) 제발 끊지 마세요. 김덕희씨? 김덕희
씨 듣고 있어요?

덕희, 갓길에 차를 끼익 세운다.

덕희 : (핸드폰을 빼 들며) 야 이 개새끼야! 너 어디야? 어디야 지금? 됐다, 그만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니 말 믿고 사채 썼다가 지금 좇됐어. 어떡할 거야? 어?

재민 : 진정하시구, 일단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덕희 : 니 말 듣다가 개털 났거든?

재민 : 이번엔 진짜예요! 김덕희씨한테 제보할 거라고요.

덕희 : 뭐? 뭘 해?

재민 : (작은 소리로) 제. 보. 한다고요.

덕희 : 미친 새끼 아냐? 이 와중에 또 사기를 칠려고! 너 아주 프로페셔널하다. 프
로페셔널한 씹새끼야!

재민 : (목소리 떨리는) 진짜... 믿어주세요. (작게) 나도 여기 붙잡혀서 억지로 하
는 거예요.

덕희 : 아아 그래?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네.

재민 : (버럭) 못하니까 그러죠!

재민이 소리를 지르자 쳐다보는 경찰과 덩치 1, 2.

전화기를 가리키며 상대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무마하는.

재민 : (작은 소리로) 어디 전화했는지 번호 다 떠요. 경찰한테 했다가는 바로 걸
려서 맞아 죽어요.

덕희 : ... 뭐야? 진짜야? 진짜 제보를 하겠다고?

재민 : 진짜예요.

덕희 : (혼란스럽고) 그래. 진짜라고 쳐. 치자고. 근데 왜 나야?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나한테 전화했냐구.

재민 : (잠시 망설이다가) ... 김덕희씨가 제일 빨랐어요, 돈 보내는게... 딴 사람들
은 서류며 대출이며 일주일씩 걸리는데 김덕희씨는 요청하면 바로바로,

덕희 : (어이없어 웃음이 나고) 허! 허허!

재민 : (달래며) 그만큼 추진력이 좋단 거니까 좋은 거예요. (작은 소리) 경찰도 피
해자가 그렇게 푸시하면 무시 못 할 거고. 나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정
말로 나가고 싶어요.

그때, 어느새 다가온 대우가 재민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재민, 허겁 놀라는데...

덕희 : (흔들리는데)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어? 손대리 같으면 믿겠어?
 재민 : ... (대우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하는데)
 대우 : (계속 통화하라는 제스처)
 재민 : (에라이 모르겠다) 믿어봐요 쯔! 진짜예요. 진짜로 김덕희 고객님의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다니까요! (대우의 눈치를 살피는데)
 대우 : (만족스러운 얼굴)
 덕희 : (요 새끼 봐라?)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재민 : ... 돈이죠. 돈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대우, 재민을 격려하듯 어깨를 두드리고는 간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재민.

재민 : (작은 소리로) 내가 아는 거 다 말할게요. 신고만 해주세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떨리는) 제발요... 제발...
 덕희 : ... 오분 뒤에 다시 해.
 재민 : 예?
 덕희 : 지금 운전 중이니까 오분 뒤에 다시 전화하라고.

덕희,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다.

재민 : 여보세요? 여보세요?

끊어진 전화를 보고 황당해하는...

25. 차 안. 낮

대시보드 안의 물건들을 헤집으며 메모지를 찾는 덕희.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뚜르르 뚜르르 통화 연결음만 계속된다.

덕희 : 받아라. 쯔 받아...! 박형사... 쯔 받아...!
 핸드폰 : (소리)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덕희 : (분노해 핸들을 치며) 으아아아! 정말! 도움이 안 돼! 도움이!

26. 화성시 도로 갓길. 낮

덕희, 메모지를 들고 차에서 내린다.
 큰 덤프트럭이 지나다니는 갓길에서 어딘가 또 전화를 하고...

상담원 : (소리) 긴급신고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덕희 : 내가 지금 화성경찰서 지능팀이랑 통화를 해야 하는데, 전화가 안 되거든

요.

상담원 : (소리) 아 네, 지능팀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덕희 : 손대리한테 전화가 와서, 아 손대리가 누구냐면, 내가 얼마 전에 보이스 피싱을 당했거든요? 그거 등쳐먹은 새끼가 손대리한테 이새끼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제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애긴지 알겠어요?

상담원 : (소리) 아 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덕희 : 아뇨. 아뇨.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스피싱 제보 전화를 받은 거죠. 손대리가 제보를 한다고 했으니깐요. 그래서 나는 뭐 어떤 정보를 받아야 되는지 물어볼려고 지능팀에 전할했는데 통화가 안 되고,

상담원 : (소리) 어유, 답답하셨겠네요.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아무데나 가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덕희 : 근데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바로 전화 올 거거든요? 뭐 어떤 정보를 받아야 돼요?

상담원 : (소리) 어.... 음... 일단은 가까운 경찰서를 가셔서,

덕희 : 아니, 못 간다니깐요.

상담원 : (소리) 침착하시고요, 주변에 가까운 경찰서가 있을 거거든요.

덕희 : (시간을 확인하며) 아니 바로 전화가 온다니까...! 내 말이 어려워요?

상담원 : (소리) 찾아보니까 7분 거리에 지구대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셔서,

덕희 : 바로 전화가 온다고! 지금 바로! 못 간다고오오!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덕희.

답답함에 허공에 주먹질을 하며 발버둥을 친다.

27. 중국 청다오 콜센터 사무실. 낮

6시까지 오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재민,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해하는데

대우가 떡하니 바로 뒤에 앉아 직원들을 감시 중이다.

대우 : 퇴근 시간 다 됐다고 농땡이 피우지 말고! 끝까지 걸어! 끝까지!

재민, 전화를 들었다가 커피 서들을 하는 경찰을 본다.

경찰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보고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러다 키보드 한글 자판 위에 알파벳들을 발견한다.

이거다! 눈을 반짝이는 재민.

28. 교차편집 (화성시 도로 갓길 + 콜센터 사무실)

쭈그려 앉아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아 핸드폰을 쥐고 있는 덕희.

그때, 핸드폰이 울리고

덕희, 펄떡 일어나며 잠시 긴장되는 숨을 후후 고른다.

덕희 : (너스레를 떨며) 어! 손대리! 차가 막혀서 겨우 세웠네.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재민 : (뒤에 앉은 대우의 눈치를 살피며) 네,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한 번 검색을 해보세요. 인터넷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덕희 : 갑자기 뭘 소리야?

재민 : 메모 가능하시죠? 적으세요. CNSGHKFN

덕희 : 아니, 제보한다면서 왜 자꾸 이상한 소릴해?

재민 : CNSGHKFN 적었어요?

덕희 : (일단 적으며) 잠깐만, 적고 있어. CNSG 다음에 뭐라고?

차 위에 종이를 대고 열심히 메모하는 덕희의 모습에서 자막 :

첫번째 제보
2015년 7월 17일

29. 화성경찰서 복도. 낮

메모지를 들고 헬레벌떡 달리는 덕희.
힘차게 지능팀 사무실 문을 여는데...!
사무실 안에는 30여명 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30. 화성경찰서 지능팀. 낮

어안이 빙빙해서 문 앞에 서 있는 덕희.
“내 돈!” “그 새끼 빨리 잡아요! 얼른!”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사무실 안은 거의 아수라장이다.

신형사 : 분양 사기 피해자분들! 차례로 줄 서세요! 줄!

덕희, 그제야 박형사를 찾는데
박형사도 피해자들에 둘러싸여 정신없는 모습이다.

덕희 : (피해자들을 뚫고 가려하며) 박형사님! 박형사님!

박형사, 덕희를 발견하지만 외면한다.

31. 화성경찰서 남자화장실. 낮

오줌을 누며 겨우 한숨을 돌리는데...
덕희가 남자 화장실로 뛰어 들어온다.

덕희 : 박형사님!

돌아보고 깜짝 놀라는 박형사.

박형사 : (소변기에 바짝 붙으며) 아이씨! 어딜 들어와요?

덕희 : (뒤돌며) 안 볼테니까 잠깐 얘기 좀 해요. 시간 없다고 튕기지 말고요!

박형사 : 아 나가요!

덕희 : 안 본다니까!

박형사 : 밖에서 들으면 되잖아요!!!

덕희 : 오케이! 콜!

그제야 나가는 덕희.

박형사, 에이씨... 하며 오줌 묻은 손을 툄다.

32. 화성경찰서 복도 + 지능팀 앞. 낮

메모지에는 알파벳들과 “중국 칭다오” “춘화루 근처” “3층 건물”

“조직원 60명” “감금 폭행” “고액 알바 사기” 단어가 적혀 있다.

메모지를 미심쩍은 표정으로 보고 있는 박형사.

덕희 : (흥분해서 와다다다) 침엔 뭘소릴 하나 했는데 혹시나 하고 여기 알파벳 이
걸 키보드 한영키 바꿔서 적었더니 이렇게 말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소름이
짜악 끼치면서 진짜 제보 맞구나 실감이 나면서,

박형사 : (심드렁한) 전할 언제 받았다고요?

덕희 : 방금요.

박형사 : 방금 언제요?

덕희 : 삼십분도 안 됐어요. 박형사님 만나러 오는데 전화가 와서 자기가 중국 칭
다오에 갇혀있다고 신고 좀 해달라고 말해준 거예요.

박형사 : 콜센터 주소는 없네요?

덕희 : 모른대요.

박형사 : 모른다?

덕희 : 공항에서 바로 차 타고 끌려가서... (웃는 박형사를 보고) 왜 웃어요?

박형사 : ... 솔직히 그렇잖아요. 수사 종결됐다고 통화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갑자기
제보가 오고.

덕희 : 통화내역 뽑아와요?

박형사 : 그거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지. 참... 어차피 이걸로는 재수사 못 해요.

덕희 : 왜요?

박형사 : (인내하며) 콜센터 주소도 없고,

덕희 : 찾아야죠! (메모지를 흔들며) 이거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무슨 형사가 그렇
게 날로 먹을려고 그래요?

박형사 : 제발! 제발 좀 그래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사무실 못 봤어요? 백억짜리 터져서 다 정신 없고. 일단 나도 울고불고 하는 피해자들부터 수습해야 돼요.

덕희 : 나도 피해자예요! 큰 피해자, 작은 피해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형사 : 선배님!

박형사 : 간다! 가!

덕희 : (가려는 박형사를 붙잡으며) 박형사님!

박형사 : 담에 또 전화오거든 주소, 콜센터 주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조사를 하든 구하러 가든 한다고. (혼잣말처럼) 또 전화가 올지는 모르겠지 만. (가는)

33. 세탁공장 라커룸 앞. 저녁

숙자와 봉림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다가
터덜터덜 걸어오는 덕희를 발견한다.

숙자 : 어디 갔다 와? 너 우리한테 뭐 할 말 없어?

덕희 : (그냥 들어가려하며) 나중에. 응? 나중에 해, 언니.

봉림 : 민지가 엄마랑 여 산다는데 그 뭔 말이니?

덕희 : ... 그냥 그렇게 됐어.

숙자 : 왜? 너 대출받은 돈은 어찌고?

덕희 : 안 받았어.

숙자 : 지난번에 받았다면...!

덕희 : 사기 당했어! 보이스피싱 사기! 됐어?

일순, 정적이 흐르고...

봉림 : 언제? 언제 당했니?

덕희 :

숙자 : 야...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말을 해야지,

덕희 : 뭐라고 말해? 내가 내 손으로 사기꾼한테 돈 보냈는데! 내가 그런 등신이라고 말해?

봉림 : 얼마니? 백? 이백?

덕희 : 삼천이백... 사채까지 끌어 썼어. 모텔비 낼 돈도 없구, 언니들한테 또 손 벌릴 염치도 없구, 경찰은 수사 안 한대고, 나 머리 깨지겠어. (가는)

숙자와 봉림은 뭐라 할 말이 없고...

34. 화성시 동네 놀이터. 낮

까르르 아이들의 웃음소리 들리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찾습니다’ 전단지를 벽에 붙이는 덕희. .

덕희 : (미끄럼틀을 타는 민지와 훈이에게) 조심해! 조심!

벤치에 앉아있는 학부모들을 발견하고 다가가는 덕희.

덕희 : 안녕하세요~ 이거 한 번만 보세요~

전단지를 나눠주는 덕희의 모습에서 몽타주 음악 시작된다.

35. 몽타주

- 탑차를 운전하는 덕희. 민지와 훈이는 김밥을 먹으며 유튜브 동요를 신나서 따라 부르고... 덕희도 에라이! 하고 신나게 노래를 부른다.

- 화성시 변화가. 고사리 손으로 전단지를 한 장씩 덕희에게 건네주는 민지와 훈이. 덕희, 벽에 전단지를 붙인다.

- 세탁공장에서 피곤에 찼어 일하는 덕희. 숙자와 봉림은 걱정스럽게 쳐다본다.

봉림 : 꿈쳐논 돈 없니?

숙자 : 저번에 인도 갔을때 다 썼어.

봉림 : (얼척 없는 눈으로 보며) 우째 그래 버는 족족 다 쓰니?

숙자 : 돈 안 쓰면 죽는 병 있다, 왜! 넌 쯔 없어?

봉림 : 내 처녀 가장 아이니. 부모님한테 보내고나믄 요 주둥아리 풀칠도 어렵다.

- 텐트 안. 보이스피싱 전단지로 접은 종이비행기를 위잉- 날리고 노는 민지와 훈이.
종이비행기가 텐트 밖으로 나가자 얼른 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세탁공장 직원들, 떨떠름한 표정이다.

36. 어느 호프집 안. 낮

영업 전 청소 중인 은미 (20대 후반, 여)

팔랑거리는 소리에 보면, 덕희와 민지, 훈이가 서 있다.

덕희 : 은미씨? 김덕희예요. 전화한...

은미 : 아, 안녕하세요.

CUT TO :

민지와 훈이는 옆테이블에 앉아 놀고 있고,

덕희와 은미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다.

은미 : ... 원래 모르는 번호로 오는 건 안받는데, 그날은 그냥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막 화를 내더라고요.

덕희 : 나도 그랬어요. 일부러 정신없게 할려고...

은미 : 네. 막 화를 내면서 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상황이 심각하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빨리 통장을 보내래요.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데 연루면 큰일이라고... 그 말 듣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 취직을 진짜 어렵게 해서... 제발 도와달라고 나 찢리면 안 된다고 사정사정하면서 통장을 보냈는데, 근데 그게... 그게 (말을 잊지 못하고)

덕희 : 대포통장으로 쓰인 거죠? 그놈들?

은미 : (끄덕끄덕) 그 주에 다니던 은행에서 해고됐어요. 다른 은행 면접도 봤는데... 대포통장 이력 때문에 은행은 아예 취직인 안 된다고... (눈물이 뚝뚝)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은행에 다니는 애가 바보같이 보이스트핑을 당하냐구...바보같이...

덕희, 우는 은미의 손을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37. 몽타주

- 탐차를 운전하는 덕희의 얼굴 위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온다.

라디오 : 경기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6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보이스트핑 사기를 당한 남성은 가족들에게 불 면목이 없다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중국 칭다오 콜센터에서 전화하는 직원들의 모습.

- 카페에서 피해자들을 만나는 덕희. 50대 직장인 남성부터 40대 아줌마, 60대 노인까지 피해자들은 저마다 하소연을 하고, 울며 가슴을 친다.

라디오 : 보이스트핑은 그 수법이 점점 치밀해지고 있는데요. 대출사기형, 기관사칭형을 비롯해 최근에는 몸캠피싱, 악성코드를 심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유도하는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콜센터 정보팀 컴퓨터로 보이는 몸캠 피싱 피해자의 모습.

- 어느 아파트 화단에 근처에서 웅성대며 놀란 얼굴의 주민들. 보면, 자살한 피해자의 시신이 보이고...

라디오 : 한 범죄 전문가는 보이스트핑 조직이 완전체 조직이며, 총책은 대부분 해

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고, 그로인한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 중국 칭다오 콜센터 사무실. 첸, 조직원 3명이 테이블 가득 쌓여있는 돈을 계수기 등을 이용해 세고는 큰 가방에 차곡차곡 넣고 있다. 병거지 모자를 쓴 총책은 명품 시계를 찬 채 작은 일수가방에 다발로 묶인 돈을 확확 집어넣는다.

라디오 :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887억원, 하루 평균 70여명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8. 세탁공장 라커룸. 밤

나름 아늑하게 텐트를 쳐놓은 모습.

덕희는 메모지를 보며 칭다오 지도에 춘화루를 표시한다.

72개나 되는 동그라미를 보다가 지도를 덮고...

잠든 민지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민지 : (잠에서 깨서) 뭐해?
덕희 : 아무 것도. 그냥 우리 딸 얼굴 보고 있었지.
민지 : ... 엄마, 나 궁전 안 가도 돼. 여기도 좋아.
덕희 : 진짜?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해?
민지 : 갑자기 생각나서.
덕희 : (간지럽히며) 진짜? 진짜? 거짓말 같은데~
민지 : (까르르) 진짜야. 돈 한 개도 없어도 엄마 있으니까.
덕희 : (민지를 꼭 안는) 응.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39. 중국 칭다오 콜센터 사무실 + 세탁공장 일각. 낮

사무실과 세탁 공장에서 서로 통화하는 재민과 덕희.

재민 :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 예?
덕희 : ... 박형사 말로는 주소가 없어서 수사를 못 한다는데,
재민 : 그게 말이 돼요? 할 맘이 없는 거지.
덕희 : 그래서 나 말고 다른 피해자들도 찾았어. 진술서랑 입금계좌 싹 모아서 들이밀면 박형사도 무시하진 못 할 거야.
재민 : 몇 명인데요?
덕희 : 피해자? 일단은 아홉명이고,
재민 : (참나) 아홉? 박형사가 잘도 들어주겠네요.
덕희 : 주소는 모른다며? 박형사는 자꾸 주소 달라는데 그럼 손 놓고 있어?
재민 : 아 진짜 미치겠네. 알면 말했지. 내가 중국말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춘화루도 겨우 읽었는데...!

덕희 : 그놈의 춘화루! 몇 갠줄 알어? 칭다오에만 72개야!

40. 세탁공장. 낮

텐트 안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는 민지와 훈이.

훈이 : 나가고 시퍼...
민지 : 안 돼. 엄마가 밖에 나가면 뭐라 그랬어?
훈이 : ... 민폐.
민지 : 그래. 민폐야! 빨리 색칠해!

시무룩해서 색칠하는 훈이.

그때, 아동보호복지센터 직원(40대, 여)과 경찰(30대, 남)이 다가온다.

복지직원 : 안녕. 너희가 민지, 훈이 맞지?

41. 중국 칭다오 콜센터 사무실 + 세탁공장 일각. 낮

덕희 : 잘 생각해봐. 그래도 특징 같은 게 있을 거 아냐? 뭐 사무실 간판이나,
재민 : 그런 거 없어요. 건물도 그냥 평범하고... 없는데... (하다가) 아 이런 것도
되나? 여기 미싱? 옷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고, 원단 같은 것도 좀 있
고...
덕희 : ... 혹시 사진 같은 건 못 찍어?
재민 : 그걸 어떻게 찍어요? 카메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덕희 : 콜센터 주소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찾냐구.
재민 : 나는 전화도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에이씨 몰라. 때려쳐요! 때려쳐!
덕희 : 손대리, 그러지 말고,

그때, 숙자가 혈레벌떡 뛰어온다.

숙자 : 덕희야! 애들! 애들한테 빨리 가봐!

놀란 덕희의 얼굴.

42. 세탁공장 안. 낮

텅 비어있는 텐트.

봉림은 괜히 흐트러진 크레파스를 정리하는데

직원들, “그러게 왜 애들을 공장에 데려와.” 쑥덕거린다.

봉림 : (찌릿) 누군 데려오고 싶어 데려오니?! 애 엄마 맘은 썩어 문드러졌다야!

43. 세탁공장 앞. 낮

실랑이를 하며 경찰차로 가는 덕희와 복지직원.
숙자는 뒤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지켜보고 있고...

복지직원 : (달리며)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덕희 : (밀어부치며) 뭐가 안 돼요? 갑자기 와서 애들을 데려가겠다는데, 내가 네, 그러세요 그래야 돼요? (경찰차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며) 민지야! 훈아! 내려! 내려! (잠긴 문을 막 흔드는)

경찰차 안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민지와 훈이.

복지직원 : 신고가 들어왔어요. 민지랑 훈이 신변이 걱정된다고요!

덕희 : 누가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릴...!

복지직원 : 감정적으로 이러지 마시고요.

덕희 : 무슨 법이 이래? 이따위야? 어? 잡아달라는 나쁜 놈은 잡지도 않고! 애들을 뺏아가는 게 이게 법이에요?

실랑이가 계속되자 경찰관이 운전석에서 내린다.

복지직원, 경찰관에게 괜찮다는 듯 손짓을 한다.

어느새 몰려든 직원들이 기웃거리고...

숙자 : 에이씨! 좋은 말로 할 때 들어가! (주변에 밀대를 집어들며) 여기 홍숙자 성깔 드러운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어?!!!

복지직원 : (차분한) 저희는 어머니를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라커룸에서 계속 애들 재울 거예요?

덕희 : (순간 할말을 잃고)

복지직원 :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예요.

덕희 : (울컥 터지며) 학대요?

복지직원 : 조사 끝날 때까지 일단 센터에서 보호할 거구요. 신청서 내면 면회도 할 수 있어요.

덕희 : (손을 덥석) 제가 안전하게 보호할게요. 할 수 있어요!

복지직원 : 어떻게요? 지금 집도 없고, 놀이방 보낼 돈도 없으시잖아요.

덕희 : (눈물만 주룩주룩)

복지직원 : (손을 빼며) 저희도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복지직원, 그대로 경찰차에 타자마자 출발한다.

창문에 붙어 엄마! 를 부르는 민지와 훈이.

덕희, 창문을 어루만지다가 차를 쫓아 뛰기 시작한다.

덕희 : (달리며) 민지야! 훈아! 민지야!

점점 멀어지는 차를 쫓아가다가 넘어지고 마는 덕희.
그동안 참았던 설움을 터뜨리며 엉엉 운다.
숙자, 옆에서 안쓰러워하며 덕희를 토닥이지만
그칠 줄 모르는 덕희의 울음. 그 모습 길게 보여지며...

44. 세탁공장 앞. 해질 무렵

눈이 툭툭 부어 앉아있는 덕희.
숙자가 옆에서 담배를 태우며 쭈뼛거리고 있다.

숙자 : 그 총책인가 뭐신기가 하는 놈만 잡으면 돼. 그럼 너 돈도 찾구, 애들도 데려오고...!
덕희 : ... 경찰도 못 잡는 놈을 내가 무슨 수로 잡어?
숙자 : 박형사가 그래? 왜? 중국에 있어서? 중국 가까운데 가서...!
덕희 : 그럴 예산 없대.
숙자 : 이런 니미.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경찰 동호회야?

45. 세탁공장 안. 해질 무렵

세탁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1, 2, 3.

직원 1 : 아 나 재밌는 애기 들었는데.
직원 2 : 모?
직원 1 : 왜 나 조카가 화성경찰서 있잖아. 얼마 전에 그러대. 우리공장에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있다고.
직원 2 : 진짜야?
직원 3 : 누구?
직원 1 : (텐트를 턱으로 가리키며) 덕희.
직원 2 : 개도 팔자 참. 무슨 택배 오듯이 안 좋은일 일이 그렇게 들이닥치냐고.
직원 3 : 뉴스에서나 봤지. 이렇게 가까운데 그런 거 당하는 사람이 있을줄 몰랐네.

그때, 봉림이 직원 3 뒤로 지나가고

직원 1, 2는 직원 3에게 말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내는데

직원 3 : (웃으며) 도대체 얼마나 멍청하면 그런 걸 당해?

봉림, 직원 3의 머리채를 휘어잡는다.

직원 3 : 악!
봉림 : (머리를 흔들며) 멍청하긴 뉘가 멍청하니! 위로는 못 해도 인간적으로 침은

빨지 말아야지!

직원 3 : (봉림의 머리를 잡으며) 놔! 안 놔?! 누가 사기 당하랬냐고!!!

CUT TO :

싸움 구경 중인 직원들을 헤치며 들어가는 덕희와 숙자.
보면, 봉림이 1대 3으로 싸우며 다구리를 당하고 있다.

봉림 : 덕희야.... 숙자야.... 호호... 내 뻔....

순간, 덕희와 숙자의 눈이 돌아가며 으아아악! 직원 1, 2에게 달려든다.
3대 3 패싸움이 벌어지고....

직원 1 : 봉림이가 선빵했다고!

덕희 : 사람 승질 굶어놓고 선빵 안 하면 다야?! 우리가 무슨 동탄동 호구냐고!

숙자 : 와 이 상도도 없는 것들! 사람을 다구리를 놔?! 다 뒤졌어!

봉림 : 빨리 취소해라! 멍청하다고 한 말 취소해!

싸움은 점점 더 격해지며 난장판이 된다.

46. 세탁공장 사장실 앞. 낮

창문 너머로 소리를 지르는 사장과
고개를 푹 숙인 작업반장이 보인다.

사장 : (노발대발) 직원들 관리를 뭐 어떻게 한 거야?! 일하는 시간에 패싸움이 뭐
야!!

반장 : 죄송합니다.

창문 앞 의자에는 덕희, 숙자, 봉림이 앉아있다.

직원 1, 2, 3과 서로 등지고 앉은 세 사람.

머리며 웃이며 얼굴이며 꼴이 엉망이다.

숙자, 덕희의 헝클어진 머리를 만져주자 덕희는 숙자의 옷을 정리해주는데

숙자, 팔을 들자 아예 옆구리가 다 뜯어졌다.

푸하하! 웃음이 터진 세 사람.

덕희 : (숙자에게) 나 돈 좀 빌려줘.

숙자 : (씨익) 빨리도 말한다. 야 이 기지배야. 빌려주는 사람이 눈치까지 봐야 돼?
(통장을 주는데)

봉림 : (통장 빼앗아 보며) 에게. 이백? 이걸로 방이나 얻겠니?

덕희 : 이거면 충분해. (잠시 쉬고) 칭다오 가고도 남지.

숙자와 봉림, 놀라 덕희를 보는데 결연한 표정.

숙자 : 에잇, 씨비스다! 돈 빌려주는 김에 몸도 빌려줄게. 나 비싼 몸인 거 알지?
봉림 : (숙자까지 허걱!) 미쳤다. 미쳤어. 경찰도 못 잡는걸 니들이 우째 잡는다고
그라니? (뺨을 똑바로 콧으며) 나처럼 중국말을 할줄 알면 모를까.

봉림의 천연덕스러운 표정에 웃는 덕희와 숙자.

47. 중국 칭다오 공항. 낮

활주로에 착륙하는 비행기.

48. 중국 칭다오 공항 주차장. 낮

칭다오 공항 간판 아래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덕희의 모습이 보인다.
그 뒤로 숙자와 봉림이 캐리어를 끌고 나온다.
봉림은 길다란 포스터를 들고 가다가 숙자의 머리를 치고, 떨어뜨린다.

숙자 : 아이씨. 아까부터 자꾸! 야, 쓸데없는 건 좀 버려!
봉림 : 이게 뭔 줄 알고 버리라니?
숙자 : 뭔데? (보려하면)
봉림 : (손을 때리며) 부정 타게. 손 떼라! 손!
숙자 : (설마) 현빈 사진 여기까지 갖고 온 건 아니지? 맞아? 야, 나 소름. 진짜 소
름 돋았어.
덕희 : 언니, 어디로 가야 돼?
봉림 : 어, 어, 잠깐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세 사람의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끼익 선다.

택시에서 내리는 **애림(30대 후반, 조선족, 봉림의 여동생)** 멧쟁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봉림 : 애림아!!!!
애림 : 언니!!!
봉림 : 야아 니 피죽도 못 먹었니.
애림 : 언니야말로 얼굴이 반쪽임다.

건장한 체격의 봉림과 애림, 서로를 걱정한다.

49. 달리는 애림의 택시 안. 낮

민지, 훈이와 영상 통화를 하는 덕희.

민지 : 거기가 중국이야?
 덕희 : 어! 칭다오야. 보여줄까? (핸드폰을 바깥으로 돌리며) 보여?
 훈이 :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덕희 : (웃는)
 숙자, 봉림 : 민지야! 훈아! 이모도 있어! 안녕!
 민지 : 이모! 이모도 중국이야?
 숙자 : 응! 엄마 혼자 심심할까봐!
 훈이 : 뭐야... 왜 다 갔어?! 우리만 놔두고 왜 갔어?! (갑자기 우는) 으아아앙. 엄마 왜 안 와!
 민지 : 이 울보...! 쌤!
 쌤 : (달려와) 훈아. 왜 또 울어!
 덕희 : 훈아. 엄마 금방 갈 거야. 나쁜 아저씨 잡아서 꼭 데릴러 갈게! 울지마. 울지 말고. 열밤만 기다려! 응? 열밤!
 쌤 : (우는 훈이 달래느라 정신없고) 어머니,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지고... 조용해진 택시 안.
 다들 조수석에 앉아있는 덕희의 눈치를 살피는데

애림 : 언니, 내 여기 꼭 잡고 있습다. 걱정마십쇼. 그 콜센터? 금방 찾을 겁니다!
 덕희 : 고마워. 너도 바쁠텐데...
 애림 : 에이, 일 없음다.
 숙자 : (덕희에게) 애림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그치? 언니는 쓸데없이 현빈 포스터 나 가져오고 그러는데.
 봉림 : 에이 참. 나중에 멋있게 딱! 깔려고 했더만.

봉림, 포스터를 쿵라락 펼쳐 보여준다.
 놀라는 덕희와 숙자.

덕희 : 뭐야, 이게?
 봉림 : 동네경찰서에 붙어있길래 바로 안 떼왔니.
 숙자 : 진짜 1억을 준다는 거야?
 봉림 : 야. 총책인데! 당연히 줘야 안 되니!
 덕희 : 잠깐만. 나 좀 볼게, 잠깐만.

덕희, 포스터를 가져가 찬찬히 읽는다.
 큼지막하게 “보이스피싱 제보시 1억 현상금” 이라고 쓰여 있다.
 신이 나서 떠드는 숙자, 봉림, 애림.

숙자 : (신나서) 1억 타면 우리 뭐해? 뭐해야 되지이이?
 봉림 : 나 그거! 왜 비행기 좋은 자리 있잖니.

애림 : 퍼스트 클래스?!
 봉림 : 그래! 퍼스트 클래스! 넓은 자리 있잖니! 거기서 우아하게 “승무원! 나 와인 좀 갖다줘요.”
 일동 : (푸하하 웃는)

50. 중국 칭다오 큰 도로. 낮

부아앙- 달려나가는 애림의 택시.
 칭다오 풍경이 한눈에 보이고...

51. 애림의 택시 안. 낮

카메라 화면으로 보이는 3층짜리 건물과
 그 앞에서 서성거리는 덕희와 봉림.
 보면, 숙자와 애림이 택시 안에서 카메라로 덕희와 봉림을 지켜보고 있다.
 덕희와 봉림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로 보이고...
 잔뜩 긴장해서 지켜보는 숙자와 애림.

52. 콜센터 후보지 안. 낮

문이 벌럭 열리며 양아치 같은 인상의 남자(20대 후반)가 나온다.

중국인 : (중국말로) 뭐야?
 봉림 : (전단지를 건네며 / 중국말로) 안녕하세요. 저희 원단 좀 보여드리고 왔는데... 안에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국인 : (중국말로) 우린 업체 있어요.
 덕희 : (눈치를 보고 명함과 원단 샘플을 꺼내 봉림에게 건넨다)
 봉림 : (중국말로) 저희 원단 진짜 싸고 좋아요. 잠깐만...! (억지로 들어가려하며)
 중국인 : (중국말로) 귀찮게 왜 이래! 나가! 나가!

중국인과 봉림이 실랑이 하는 사이 안을 엿보는 덕희.
 실제 바지를 만드는 공장 내부가 보이고...
 실망하는 덕희.

중국인 : (중국말로) 빨리 나가라고! (봉림을 밀치고)

그 바람에 콧대! 넘어지는 봉림.

덕희 : 언니! 괜찮아?!
 봉림 : (팔을 만지며 괴로워하는) 아야야....
 덕희 : (발끈해서 중국인을 세게 밀며) 왜 사람을 밀고 지랄이야. 어?! 다쳤잖아. 아

프잖아.

중국인 : (약간 쫓아서/ 중국말로) 뭐라는 거야? 중국말로 해. 중국말로.

덕희 : 돈 터치. 펍유. 오케이?

중국인 : (병찌는데)

봉림 : (팔이 아파서 앉아있는 채로) 덕희야. 됐어. 가자. 가자.

봉림을 부축해서 나가는 덕희.

53. 중국 칭다오 식당. 저녁

현지 느낌이 물씬 나는 식당 룸 안.

원형 테이블에 앉아있는 대우와 협박팀장, 정보팀장.

여종업원 하나가 테이블에 음식을 세팅하고 있다.

정보팀장 : (핸드폰을 보고) 총책은 쯔 늦는다네. 먼저 먹자.

대우 : 꼭 삼십분씩 늦어. 우리랑 한 약속은 뭐 약속도 아냐? 찿.

협박팀장 : 바쁘겠지. 콜센터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우 : 그러니까 혼자 다 처먹지 말고, 애들 승진도 시키고 나누면 쯔 좋아?

정보팀장 :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대우 : 불만이 아니라, 씨발. 솔직한 말로 칭다오가 누구 때때 이렇게 쯔어? 어?

54. 중국 칭다오 식당, 다른 방. 저녁

대우 : (소리) 근데 무슨 동네 구멍가게처럼, 돈을 그렇게 배분하느냐고.

도청장치로 대우와 총책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소리가 커지자 스피커 볼륨을 조절하는 첸.

총책은 세 사람의 얘기를 엿들으며 여유롭게 식사 중이다.

테이블 가득 음식이 놓여있고 원판을 돌리라며 하나씩 골라 먹는

대우 : (소리) 왜? 내 말이 틀렸어?

정보팀장 : (소리) 조용히 말해. 누가 들으면 어찌려고.

대우 : (소리) 간쟁이 진짜. 쫓려서 이것은 어떻게 하나?

정보팀장 : (소리) 궁금하면, 밖에서 다이다이까든지.

협박팀장 : (소리) 아 왜들이래? 앉아. 앉아.

대우 : (소리) 3배. 우리가 3배는 더 받아야 된다고 봐. 총책도 우리가 얘기하면 마냥 무시하진 못 할 걸? 그렇잖아. 여기 센터가 총책 없다고 안 굴러가? 굴러가. 근데 우리 없으면? 영업 개판 되는 거지.

대우의 말에 비웃는 총책.

첸 : (중국말로) 이번 기회에 관리자들도 손 좀 불까요?

총책 : (중국말로) 첸. 사람을 그렇게 쉽게 버리면 안 돼. 뽕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뽕아먹고 버려야지.

55. 중국 칭다오 콜센터 숙소화장실. 밤

화장실 구석에서 코카인을 흡입하는 경찰.

약에 취해 실실 웃기 시작한다.

56. 중국 칭다오 콜센터 숙소거실. 밤

뿌연 담배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조직원들과 포커를 치고 있는 재민.

연신 맥주를 마시며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거실의 다른 조직원들은 축구를 보며 킁킁대거나 포커를 치고 있고

군데군데 코카인을 흡입하는 조직원들도 보인다.

조직원 1 : 야, 이번에 총책 새 차 봤어?

조직원 2 : 아니. 뭘로 바꿨는데

조직원 1 : 롤스로이스. 존나 멋있어. 진짜 끝장.

조직원 2 : 콜센터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쓸어담겠지. 부럽다.

조직원 1 : 부러우면 너도 팀장 똥꼬 빨아. 그럼 바로 포르쉐지~ 그게 웬만한 대기업보다 나아요~

재민 : ... 형들은 총책 얼굴 본 적 있어?

조직원 2 : 없지. 여기 아무도 없을걸? 연예인처럼 모자 폭 눌러쓰고 다니는데.

조직원 1 : 근데 그게 왜 궁금해?

재민 : ... 맨날 모자 쓰고 다니길래 얼굴이 존못인가 싶어서.

조직원 1 : 크하하. 그럴수도 있겠다.

조직원 2 : 그럼 모자 쓰는 거 인정. ㅋㅋㅋㅋ.

그때, 경찰이 조직원 2를 툭 치며 우당탕 넘어진다.

조직원 2 : 아이씨! 뭐야?!

눈이 풀린 경찰, 비틀비틀 일어나 흘린 맥주를 손으로 닦는다.

경찰 : 어? 미안, 미안합니다. 히히히... 미안합니다.

조직원2 : 죽을래? 어?

조직원1 : 야, 저 새끼 눈 다 풀렸어.

조직원2 : (경찰을 팍 밀치며) 저리가! 약쟁이가 콧 뒤질라고!

경찰, 절뚝거리며 거실 중앙쪽으로 간다.

그런 경찰을 보는 재민, 마음이 영 불편한데...

조직원 2 : 존나 맘에 안 드네, 진짜.

조직원 1 : 불쌍한 새끼 녀되라 줘. 다리는 망가졌지, 약이라도 빨아야지.

조직원 2 : 그러게 왜 도망을 가? 어차피 성공도 못 하는데.

조직원 1 : 그래도 저새끼 운이 좋은 거야. 어떤 새끼는 몰래 전화하다가 이팀장한테 걸렸거든? 빠따로 존나 맞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때, 갑자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린다.

재민 보면, 경찰이 다른 조직원에게 맞고 있다.

외면하고 맥주를 마시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고...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에게 가는 재민.

경찰을 때리는 조직원 3을 확 밀친다.

재민 : 왜 사람을 때려?

조직원 3 : 와 씨바... 정의의 사도냐? (제스처를 하며) 아니면 둘이 뭐 그런 사이야?

조직원 3, 패거리들과 킁킁거리는데

재민, 그대로 조직원 3에게 달려들더니 싸움을 시작한다.

그러나 싸움을 못해서 오히려 얻어맞는...

57. 중국 칭다오 콜센터 숙소 방 안. 밤

비틀거리는 경찰을 부축해서 방 안에 데려다주는 재민.

경찰 : (킁킁) 너 싸움 존나 못 하더라.

재민 : 입 다물고 똑바로 걷거나 해.

경찰 : 너도 알바 돈 많이 준대서 왔지? ... 시발... 따라오는 게 아니었는데... 용택이 새끼는 나만 믿고 왔다가 맞아죽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재민 : (내팽개치듯 내려놓고 가는데) 잠이나 자.

경찰 : ... 야. (대꾸가 없자) 야!

재민 : 왜?

경찰 : (코를 훌쩍거리며) ... 약 있으면 좀만 줘. 내가 요새 잠을 잘 못 자가지고...
호호...

재민, 비굴하게 웃는 경찰을 본다.

58. 중국 칭다오 콜센터. 밤

대우의 톨마니에게 돈을 찢어주는 재민.

똥마니 : (좋으면서) ... 우리도 티오가 없다니까.

재민 : 아이 대리님.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애들 관리가 안 된다면서... 믿고 한번 시켜보세요. (돈을 더 찢어주며) 나도 포르쉐 한번 타보자고요.

59. 중국 칭다오 콜센터 사무실. 낮

재민은 덩치 1, 2와 마찬가지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감시 역할을 하며, 빈둥대는 조직원 3의 뒤통수를 팹! 때린다.

재민 : (조직원 3의 뒤통수를 때리며) 딴 애들 다 이백쿨 삼백쿨하는데 뭐했어? 어? 멍 때리면 알아서 전화가 걸리냐?

조직원 3 : (핵 노려보면)

재민 : (야구 배트를 어깨에 올리며) 왜? 뭐? 불만 있어?

조직원 3 : (주변을 보니 덩치1과 2도 자신을 보고 있고, 깨갱하며) ... 하고 있어... 요...

재민 : (뒤통수 한 번 더 때리며) 잘해. 지켜볼 테니까.

재민, 대우와 같이 붙어있는 똥마니를 보고 꾸벅 인사를 한다.

그런 재민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경찰.

대우와 똥마니가 나가자 재민은 자연스럽게 기둥 뒤로 간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몰래 구형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찰칵 찰칵 핸드폰에 찍히는 사무실 내부 모습.

그때, 재민의 핸드폰이 울리고...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는다.

재민 : 아, 네. 팀장님 책상예요? 예.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재민, 대우의 책상으로 가서 서류를 꺼내보니

피해자들의 입금내역이 주르륵 적힌 피해자리스트다.

놀라 덩치 1, 2의 동태를 살피는 재민.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바닥에 흘리고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재민 : (엄청난 양이고) ... 아이씨... 졸라 많네....

60. 중국 칭다오 콜센터 숙소 화장실. 밤

재민, 핸드폰으로 메시지 전송해보지만 계속 전송실패가 뜬다.

와이파이를 잡아보려 이리저리 팔을 휘두르다가

겨우 와이파이가 잡히고...

재민 : 잡혔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핸드폰 전화를 거는데)

소리 : 이 전화는 발신이 금지된 전화입니다...

재민 : (벽에 머리를 박으며) 아이씨...! 찍으면 뭘 하나고...! 보내질 못 하는데!!

61. 중국 칭다오 콜센터 정보팀 앞. 밤

딩치 하나가 사무실을 휘 둘러보고는 나간다.
숨어 있던 재민, 덩치가 나가자 정보팀 사무실로 다가간다.
자를 꺼내 문 열기를 시도하는데...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을 잘 열리지 않고...

딩치 1 : (소리) 아 확인했다니까.

딩치 2 : (소리) 한 번 더 해. 내가 들었다니까. 덜컹덜컹하는 소리 나 진짜.

재민, 마땅히 숨을 곳이 보이지 않고...
다급한 손놀림으로 자를 더 움직여보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
점점 가까워오는 발소리.
진땀을 흘리는 재민, 아이씨 망했다, 하는데 문이 찰칵 열린다.
재빨리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숨는 재민.

62. 중국 칭다오 콜센터 정보팀 사무실 안. 밤

문 아래 숨어있는 재민 위로 플래시 불빛이 스쳐지나가고...
재민, 슬그머니 일어나 덩치들이 다시 나가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곧장 컴퓨터 전원을 켜고 핸드폰을 연결할 준비를 하는데
컴퓨터 화면에 비밀번호 창이 뜬다.
다른 컴퓨터도 켜보지만 모두 비밀번호창이 뜬다.
아쉬운대로 ‘0000’ ‘1234’를 쳐보는데 실패라고 뜨고...

재민 : (좌절하며) 이걸 내가 어뜨케 알아... (하는데 모니터에 붙어있는 포스트잇
의 정체불명 영어숫자조합을 발견하고) 에이 설마.... 설마....

재민, 포스트잇에 적혀있는대로 비번을 치는데 화면이 열린다.

재민 : (기쁨의 댄스를 짧게 추고) 비번 관리를 잘해야지. 정보팀 애네 안 되겠네.

재민, 순조롭게 핸드폰의 사진을 컴퓨터로 불러오는데
누군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온다.

경찰 : 너 여기서 뭐해?

재민 : (침 꿀꺽) 넌 뭐하는데?

경찰 : 너도 약 사러 왔어? 컴퓨터는 왜 다 켜고... 으엏!

재민,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을 사무실 안으로 먹살을 잡아 끈다.

재민 : 지금 본 거 누구한테 얘기하기만 해봐. 진짜 나 가만 안 있다.
경찰 : 뭐하길래...?!
재민 : (먹살을 콕 잡으며) 건 니가 알 거 없고. 가. 가라고.
경찰 :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재민 : 여기?! 언제?
경찰 : 이제 올 때 됐는데...

재민, 컴퓨터를 확인해보는데 아직 70프로밖에 되질 않았다.

재민 : 아이씨...! 미치겠네... 야. 잠깐만 망 좀 봐줘.
경찰 : 뭐? 싫어.
재민 : 진짜 얼마 안 걸려. 3분! 3분이면 돼. 대신 내가 너 카바쳐줄게. 이리저리 맞고 다니는 거 지겹지도 않냐? 응? 3분이면 된다니까...!
경찰 : (잠시 망설이다가) ... 망만 보면 되는 거야?
재민 : (끄덕끄덕) 어어! 망만 봐. 금방 끝나!

경찰, 쭈뼛쭈뼛 밖으로 나가 망을 본다.

재민, 서둘러 컴퓨터를 보는데 핸드폰 사진 불러오기가 끝났다.

곧바로 인터넷 팩스 보내기의 전송버튼을 누르는데

엄청 느리게 올라가는 퍼센트 속도.

63. 교차편집 (정보팀 사무실 앞 + 안)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경찰.

경찰 : 다 돼가? 얼마나 남았어?
재민 : (아직 한참 남은 퍼센트를 보며) 어~ 거의 다 됐어~

그때, 정보팀 조직원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고...

후다닥 뛰어가서 확인하고 다시 사무실로 가는 경찰.

경찰 : 야. 야. (대답이 없자) 야! 왔어. 왔다고.
재민 : (화창을 보는데 아직 30프로) 시간을 좀만 좀 끌어봐.
경찰 : 망만 보면 된다며...! 나 안 해!
재민 : 나 걸리면 너랑 같이 했다고 물고 늘어질 거니까, 시간을 끌던지, 같이 좇되던지 너 알아서 해.
경찰 : ... 이 개새끼.

64. 중국 칭다오 콜센터 사무실 계단 앞. 밤

계단을 올라가는 정보팀 조직원, 불쑥 나타난 경찰에 놀란다.

정보팀 : 아이구! 깜짝아! 왜 여겼어?
경찰 : 빨리 받고 싶어서.. ㅎㅎ..
정보팀 : 사무실에 있어. 갖고 나올게. (가려 하면)
경찰 : (막으며) 저기, 제가 돈을 안 갖고 왔는데... 외상 좀..
정보팀 : 미쳤나? 돈도 없으면서 무슨 약을 산다고. 가. 가. (사무실로 가려하자)
경찰 : (물고 늘어지며) 아 쏘 그냥 줘! 그냥!

실랑이하는 경찰과 정보팀.

65. 중국 칭다오 콜센터 사무실 안. 밤

초조해하는 재민, 화면창 퍼센트는 90퍼센트이고...
재민, 숨어서 밖을 보는데 정보팀 직원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경찰이 다시 직원에게 달려든다.
화가 난 정보팀 직원이 경찰을 두들겨 팬다.

정보팀 : 놔! 놔! 이 또라이새끼! 약 빨았으면 구석에 처박혀있지 왜 처나와서 지랄이
야! 지랄이!
경찰 : 으아아아! 그냥 줘어어어!!! 많이 샀잖아!!!!

재민, 식은땀을 닦으며 화면만 쳐다보는데...
마침내 98, 99, 100퍼센트, 인터넷 팩스 보내기가 완료됐다는 창이 뜬다.

66. 중국 칭다오 콜센터 사무실 계단 앞. 밤

경찰, 조직원에게 맞으며,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재민을 본다.

경찰 : (다리를 놓으며) 악! 악! 숨...! 숨을 잘 못 쉬겠어...! 킁킁...! (엄살을 피우
는데)
정보팀 : (명치를 제대로 차며) 앞으로 너 내 눈에 띄면 똥질줄 알아? 알겠어? (가는)

명치를 제대로 맞은 경찰, 진짜 숨을 못 쉬어 뻘어있고....
숨어서 이를 지켜보던 재민은 넋다운된 경찰을 걱정스럽게 쳐다본다.

경찰 : (겨우 부들거리며 일어나는) ... 카바 안 쳐주기만 해봐....

재민, 일어나는 경찰을 보고 그제야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67. 화성경찰서 복도 + 지능팀 사무실. 낮

지능팀으로 빠르게 걸어가는 박형사와 신형사.

박형사 : 김덕희씨는?
신형사 :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구요.
박형사 : 팩스는 김덕희씨 앞으로 왔고?
신형사 : 네. 아무래도 김덕희씨가 말한 그 제보자가 보낸 거 같아요. 팀장님도 이번엔 좀 놀란 것 같더라고요.
박형사 : (참나) 그 양반이 지금 몇 년한테 놀라...?

박형사, 문을 열자 사무실 안은 400여장에 달하는 종이를 분류하느라 정신없고...
팩스 기기에서는 계속 종이가 나오고 있고...

팀장 : 뭐하고 섰어? 정리 안 할 거야?!
신형사 : 엠!
박형사 : (어리둥절해서 멀뚱멀뚱)
팀장 : 도대체 김덕희가 누구야? 뭐하는 사람이야?

박형사도 뒤늦게 뛰어가 서류 정리를 돕는다.
신형사, 박형사에게 종이 하나를 건네는데

신형사 : 제보자래요.

보면, 재민의 셀카사진과 이름 나이 주민번호가 쓰여 있다. 그 위로 자막 :

두 번째 제보
2015년 8월 23일

68. 교차편집 (애림의 택시 안 + 화성경찰서 지능팀)

덕희, 창밖을 보는데 도로에 꽉 막혀있는 차들.
숙자와 팔굽스를 한 봉림은 뒷좌석에 잠들어있다.
칭다오 지도를 보며 답답해하는 덕희.

덕희 : 총책. 그새긴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자길 찾고 있을 줄 알까?
애림 : 꿈에도 모를겁다. 지금도 어디서 사기치고 있잖겠습까?
덕희 : 사람이 아니라 ATM기 정도로 생각하는 거겠지. 열 받아 정말...

그때, 덕희의 핸드폰이 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는다.

덕희 : 여보세요?
 박형사 : 아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요? 몇 번을 했는데...!
 덕희 : (흥) 우리가 전화하고 그런 사이였어요?
 박형사 : 오늘 서에 좀 올 수 있어요?
 덕희 : 바빠서 못 가요. 뭍습니다!
 박형사 : 아 잠깐! 잠깐만! 김덕희씨! 뭐가 그렇게 바빠요?
 덕희 : 지금 청다오예요.
 박형사 : 어디요?
 덕희 : 청다오!
 박형사 : 거길 왜 갔어요? 설마, 설마 아니죠? 놀러갔죠?
 덕희 : 총책 잡으러 왔는데요.
 박형사 : 미쳤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겁도 없이...!
 덕희 : 박형사님, 난 총책보다 전화요금이 더 겁나거든요. 끊어요!
 박형사 : 잠깐만요, 팩스! 팩스 왔어요! 김덕희씨 앞으로 400장이 왔는데, 사무실 사진이랑 제보자 신원, 피해자 내역까지 다 왔어요. 이걸 어떻게 빼돌렸는지 1년치가 왔는데... 피해자만 2700명이 넘고, 피해금액도 최소 170억이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진짜 그때 제보 받은 거예요?
 덕희 : 컷등으로도 안 듣더니...! 소 잃고 세콤 설치하는 거야 뭐야?!
 박형사 : 아니 그때는 사정이 좀...
 덕희 : 뭐 백억짜리 수사하면 사람 개무시해도 되고 그런 사정요?

어느새 켄 숙자와 봉림.

봉림 : (맞장구치며) 대한민국 경찰 망신이네 망신이야!
 숙자 : (맞장구치며) 야!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넣어!
 박형사 : (꾸) ... 그건... 미안하게 됐어요. 내 불찰입니다.
 덕희 : 뭐라고요? 이게 해외라 잘 안 들리네...
 박형사 : 미안하다고요!
 덕희 : (씨익 웃고는) 그 사진이랑 자료 나한테도 좀 보내요.
 박형사 : ...저기... 수사 자료는 외부 유출이 안 돼서,
 숙자 : 뭘 개소리야? 덕희 앞으로 왔다면서 무슨 외부유출?
 봉림 : 쫓쫓. 형사가 이래 모지래서 되겠니?
 박형사 : (난감한데)
 덕희 : 박형사님, 들었죠? 당장 보내요. 지금 당장! (전화를 끊는)

세사람, 서로를 보며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 위로 까톡 까톡 알림음이 울린다.

69. 다른 춘화루. 밤

덕희, 프린트한 자료 속 춘화루 간판과 식당 간판을 비교해본다.
재민이 보낸 간판과는 서로 확연히 다른 모습이고...

숙자 : 뭐 좀 보여?
덕희 : (절레절레)
숙자 : 밥이나 먹어. 그만 내려놓고.
애림 : 야가 손대립니까?
숙자 : 어려워보이지? 난 당연히 아저씨같은 줄 알았는데 놀랬어.

그때, 봉림이 온다.

봉림 : 팔 때매 불일 보는 것도 일이다, 야.

봉림, 앉으며 김스한 팔로 테이블 위의 물컵을 치고
그 바람에 물이 쏟아지며 덕희가 보고 있던 사진이 다 젖는다.

봉림 : 엄마! 우짜니! 다 젖었네!
덕희 : (사진을 닦으며) 괜찮아. 별로 안 젖었어. 닦으면 돼.
애림 : (중국말로) 여기 수건 좀 주세요!
숙자 : (물이 뚝뚝 떨어지는 사진들을 들며 농담으로) 아이고, 봉림이 때매 당분간
가죽은 못 박겠네.
덕희 : (엇?)
봉림 : (발끈) 숙자 니 진짜...! 뭐만 하면 내 탓이니! (중지 김스를 FUCK YOU처럼
들어 샷대질하며) 다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애림 : 언니, 샷대질 그거는 좀 안 하면 안 됨까?
숙자 : 아 농담한 거야. 농담도 못 해?
덕희 : 언니, 방금 한 말 다시 해봐. 뭐라 그랬어?
숙자 : 아 진짜 농담한 거라니까. 가죽미싱에 물 쏟아서... 뭐 잘못 말했어?

덕희, 순간 펄떡하며 사진을 다시 보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사진 속에 작게 찍혀있는 가죽미싱기.

덕희 : (소리) 3층짜리 가죽공장은 아홉 개밖에 안 돼.

70. 콜센터 찾는 몽타주

- 배달 스쿠터를 타고 달리는 봉림과 숙자. 뒤에 탄 숙자가 지도를 보며 이리저리 방향을
얘기한다.

덕희 : (소리) 3군데만 좀 부탁해. 나머지 6군데는 우리가 빨리 돌면 되니까.

- 달리는 애림의 택시 안. 청다오 지도를 보고 있는 덕희. 바람이 머리칼에 날리고...
 - 인파 때문에 택시가 진입하지 못하고, 택시에서 내린 덕희. 인파를 뚫고 지나가며 춘화루를 찾는다.
 - 스쿠터를 탄 채로 행인에게 길을 물어보는 봉림과 숙자.
- 덕희** : (소리) 콜센터를 찾으면 바로 스탑하고 전화 때려. 알았지? 위험하게 단독 행동은 절대 안 돼.
- 춘화루를 찾아 길을 헤매는 덕희의 얼굴 위로 춘화루의 다양한 간판들이 오버랩되고...
 - 지도에 차례로 지워지는 후보지들. 늘어나는 엑스포시...
 - 애림의 택시 안. 후보지로 향하며 마지막 후보지에 크게 동그라미를 치는 덕희.

71. 폐업 춘화루 앞. 낮

춘화루 간판은 떨어져 있고, 내부는 텅 비어있다.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덕희와 애림.

- 애림** : 여기 맞습니까?
덕희 : (지도를 보며) 맞아. 여기가 마지막인데...
애림 : (봉림에게 전화하며) 언니, 우리 왔는데 가게가 없습니다. 언니들도 제대로 확인했습니까?

애림이 통화하는 사이 지나가는 중국인 아줌마(50대, 여)를 붙잡는 덕희.

- 덕희** : (어설픈 중국말로) 춘화루.
아줌마 : (중국말로) 뭐라고요?
덕희 : (어설픈 중국말로) 춘화루. (폐업한 데를 가리키며) 춘화루. (제스처로 엑스포시를 하는데)
아줌마 : (중국말로) 난 몰라요. (가는)
애림 : (전단지를 주워) 언니, 7월 30일자로 폐업한다고 써 있습니다.
덕희 : (실망하며) 아 그래? ... 여기가 마지막인데...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침부터 다시 찾아봐야 되나?
아줌마 : (소리, 중국말로) 춘화루 찾아요?

소리에 돌아보는 덕희와 애림.
아줌마와 아줌마의 친구가 서 있다.

아줌마 : (중국말로) 친구가 이쪽 골목으로 가보래요!

72. 사창가 골목길. 낮

으스스한 골목길에 얇은 옷을 입은 여자와 험상궂은 남자들이 서서 지나가는 덕희와 애림을 뵈히 쳐다본다.

얼룩옷녀 : (중국말로) 언니, 누구 찾아? 난 어때?

얼룩옷녀의 농담에 주변 사람들 까르르 웃는다.

덕희 : 뭐라고 한 거야?

애림 : 별 얘기 아임다. 신경 쓰지 마십쇼.

얼룩옷녀 : (중국말로) 어떤 스타일 찾는데? 애길 해봐!

애림 : (참다가) 덕희언니, 이진 아인 것 같습다. 일단은 돌아가서,

덕희,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얼룩옷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간다.

애림 : 어디 감까?! 언니! 덕희언니!

덕희 : (어설픈 중국말로) 춘화루. (손으로 방향을 가리킨다)

얼룩옷녀 : (중국말로) 아아. 춘화루? 돈 주면 알려줄게.

애림 : 돈 달랍니다.

덕희 : (크게 한숨을 쉬는) 애림아, 내가 하는 말 고대로 통역 좀 해줘. 나 한국에서 사기 당한 돈 찾으러 여기 왔다. 그래서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

통역하자 여자들, 어우~ 하며 안타까워한다.

얼룩옷녀 : (중국말로) 그래도 돈 안 주면 안 가르쳐줘. 세상에 공짜가 어딴어?

덕희 : 대신에 이거 새 옷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애림 : (통역하자)

얼룩옷녀 : (관심을 보이고)

CUT TO :

덕희, 얼룩이 묻은 옷 부분을 잘라내더니

명품 로고를 똑같이 자수를 놓으며 감쪽같이 만든다.

꼼꼼하고 집요한 덕희의 손길. 거의 신의 솜씨다.

우와와! 하며 넋을 놓고 보는 사람들...

73. 비좁은 골목길. 낮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며 힘겹게 골목길을 지나는 덕희와 애림.

애림 : 사람이 다니는 길 맞습니까? ... 잘못 들어왔나...?
 덕희 : 일단 가보자.
 애림 : 예.... 헉헉... 웃...! 덕희언니...
 덕희 : 왜?
 애림 : 쫓습다.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고) 아아...!
 덕희 : (손 잡아 빼며) 하나 둘 셋! 우! 다시 하나 둘...! 으으윽!

덕희, 손을 잡아 가구에 낀 애림을 꺼내려는데 나오지 않고
 애림, 괴로워한다.
 덕희, 가구를 들려고 해보는데
 오히려 다른 가구가 떨어져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애림 : (깡깡대며 움직이면)
 덕희 : (떨어질듯말 듯 가구보며) 움직이지마! 애림아. 가만있어.
 애림 : 언니, 먼저 가십쇼. 내 괜찮습다. 춘화루부터 찾아야지 안 되겠습니까?
 덕희 : (가구를 들려다가 안 되자) 잠깐만 기다려봐. 둘이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
 아무나 잡아서 데려올 테니까 잠깐만 있어!

덕희, 후다닥 골목길을 뛰어나간다.
 여기 저기 굽히며 힘겹게 골목길을 나가면, 큰 길이 나온다.

74. 춘화루 앞. 낮

사람들로 붐비는 큰 거리에서 다짜고짜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는 덕희.

덕희 : (바디랭귀지 섞어서 하며) 헬프 미. 내 친구, 마이 프렌드 끼었어. 못 나가.
 저기! 플리즈 팔로미! 저스트 파이프 미닛!

덕희를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한 행인은 그냥 썩 지나가버리고,
 덕희, 당황해서 다른 행인들을 붙잡으려 애쓴다.

덕희 : 저기요! 헤이!

다른 행인을 붙잡으려다가 입간판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덕희.
 아이씨 하며 입간판을 세우는데 입간판에 ‘춘화루 확장이전’ 이라고 쓰여 있다.
 덕희, 고개를 들자 크게 춘화루라고 쓰여진 간판이 보이고...
 주머니에서 재민이 보낸 춘화루 간판 사진을 꺼내 비교해보는 덕희.
 맞은편에 3층짜리 콜센터 건물이 보이고,
 재민이 보내온 다른 사진들과 주변의 풍경들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75. 화성경찰서 지능팀. 낮

구글 위성지도로 9개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는 박형사.

신형사 : 그게 보여요?

박형사 : 그럼 어떡해? 주소 없으면 절대 안 보내주겠다는데...

신형사 : 팀장님이요?

박형사 : 팀장님도 그러고, 외사계도 그러고. 외사계에 이거 주소 9개 들고 갔다가
개쪽 당했어. 진짜 저능팀 됐다. (눈을 비비며) 어후 눈알이야.

그때, 박형사의 핸드폰 카톡이 울리고...

카톡을 확인한 박형사, 눈이 동그래진다.

헐레벌떡 사무실을 나가려는 팀장에게 뛰어가는....

박형사 : 팀장님! 팀장님!!! 땀어요! 땀어요!!!

76. 콜센터 근처 베이스캠프. 해질 무렵 / 밤

카메라로 보이는 콜센터, 다소 허름한 모습이고...

콜센터 앞으로 출장뷔페 트럭이 서자 그 모습이 연사로 찍힌다.

보면, 콜센터가 잘 내려다보이는 폐건물에서

덕희와 숙자가 카메라로 콜센터를 지켜보고 있다.

벽에는 사진자료, 현상금 포스터 등을 붙여 나름 수사본부 느낌이 난다.

덕희 :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꼬박꼬박 오네.

숙자 : 사기 치라 먹으라 주둥이들이 바쁘네.

뒤에서 봉림은 애림의 옆구리에 난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있다.

봉림 : 원래 사람 부릴 때는 먹을 걸 잘 줘야 탈이 없는 법 아니니. (상처난 곳을
불어주며) 후후.

애림 : 저 맛있기로 소문난 탬니다.

덕희, 콜센터를 쳐다본다.

안이 보이지 않는 콜센터 사무실의 철창이 유독 눈에 띈다.

덕희 : (칫) 지금 많이 먹어뒀라. 좀 있음 콩밥이다, 새끼들아.

시간 경과 :

어느새 어둑해진 밤이다.

숙자와 봉림은 한구석에 벌러덩 누워자고 있다.

덕희는 묵묵히 콜센터를 주시하고 있는데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괜히 긴장하는 덕희, 입구를 보며 주변의 무기를 찾다가 각목을 집어든다.

덕희 : 누, 누구야? 애림이니?

대답 없이, 잠시 멈춘 발걸음.

그러고는 우다다다 뛰어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고....!

덕희, 잔뜩 긴장해 각목을 쥐고 있다가 애림이 올라오자

서로를 보고 으허허헉! 놀라 주저앉는.

보면, 애림은 두 손 가득 봉지를 들고, 입에는 꼬치를 물고 있다.

덕희 : (안심하며) 아 애림아... 놀랐잖어...!

애림 : (먹느라 발음이 잘 안 되고) 머그거 사와스니다.

CUT TO :

핸드폰에 찍은 아이들 사진을 보는 덕희, 흐뭇하게 미소짓다가
이내 피곤한 눈을 비비며 다시 콜센터를 본다.

애림 : (옆에 앉으며) 손대리 안 나왔음까?

덕희 : 응. 손대리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저기 있긴 있는 거겠지?

애림 : 이럴 때 총책이 딱 나오면 대박아임까!

덕희 : 알아보지도 못 할걸? 아는 거라곤 병거지 모자 뿐인데... (눈을 비비는)

애림 : 잠깐 눈 좀 붙이십쇼. 계속 잠도 못 자고...

덕희 : 괜찮아. 다들 나때매 고생인데...

애림 : 봉림언니 침 한국 갔을 때 맨날 울면서 내한테 전화한 거 알고 있음까?

덕희 : 언니가?

애림 : 사람들이 자기 소돼지처럼 본다고, 조선족이 뭐 죄졌냐고. 언니 우는데 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애가 타서 내 오죽하든 그냥 칭다오 다시 오라 했음
다. 그러다가 왜 언니가 공장서 지갑 훔쳤다 오해받지 않았습까?

덕희 : 아 그때.

애림 : 그때 덕희언니가 편 들어줬다고, 친구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덕희 : 그건 언니가 잘못된 것도 아녜어.

애림 : 우리도 마찬가지로.

덕희 : 고마워.

애림 : 에이, 일 없음다.

덕희 : (따라하며) 일 없음까?

CUT TO :

버너에 냄비를 놓고 라면을 끓일 준비를 하는 숙자와 봉림.

애림도 긴치를 꺼내며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

봉림 : 우리 언제까지 여 있어야 되니?
 애림 : 박형사님 올 때까지?
 숙자 : 오긴 오는 거야? 맨날 (귀찮은 표정을 흉내내며) 연락드릴게요. 예, 예, 나중에 확인해볼게요. 총책이 동네 잡범인줄 알아요?

숙자의 너스레에 봉림, 애림 웃는다.

덕희, 뭔가를 발견하고 카메라 줌을 바짝 당겨보면,
 콜센터에서 덩치와 재민이 나오는 것이 희미하게 보인다.

덕희 : 손대리! 손대리 나왔어!!!
 일동 : 뭐? 진짜?

재민과 덩치는 차에 타서 이동하려 하고,
 차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 확인하는 덕희.

덕희 : 애림아! 택시 밑에 있지?
 애림 : 예, 예!
 숙자 : 우리는? 우리도 가?
 덕희 : 여기 있어. 혹시 총책 올지도 모르니까. 사진 찍구.
 숙자 : 알았어.
 봉림 : 조심해라 둘 다!

후다닥 내려가는 덕희와 애림.

77. 콜센터 앞. 밤

애림의 택시에 올라타는 덕희와 애림.
 곧바로 택시가 차를 쫓아가며 콜센터 건물을 지나고...
 택시가 지나자마자 재민이 건물에서 내려온다.

78. 콜센터 근처 베이스캠프 안. 낮

라면을 먹는 숙자와 봉림.

봉림 : 덕희랑 애림이도 배 마이 고플텐데...
 숙자 : 어차피 냄비 작아서 나눠 끓여야돼. 우리가 먼저 먹는 게 도와주는 거야.
 봉림 : (콜센터를 힐끗 보다가) 어? 재 손대리 안 닳았니?
 숙자 : (먹느라 정신없고) 그래?
 봉림 : 저기. 재. 똑닳았다야.
 숙자 : (뒤늦게 보고) 오 진짜 닳았네. (카메라로 줌을 당겨보는)

카메라 화면으로 보이는 재민의 모습.

숙자 : 야, 재 손대리 같애.
봉림 : 내 닮았다 안 그랬니.
숙자 : 아니 진짜 손대리라니까...! (재민의 셀카를 보며) 맞아. 손대리야!
봉림 : 애가 손대리몬 아까 쫓아간 애는 뉘구니?
숙자 : (라면 그릇을 내려놓으며) 아이씨! 이거 어떡해?! 어떡해야 되지?

멀리 보이는 재민, 풀마니가 내려오자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다.

숙자 : (벌떡 일어나며) 어? 어? 간다. 간다. 아이씨. 너 여기서 덕희한테 전화 좀 해.
봉림 : (라면 먹다 말고) 어, 어. 숙자 니 어디 가니?
숙자 : 어디 가긴 쫓아가야지!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라면 한 입 더 왕창 먹고는) 더키한테 전화해! (와다다 뛰어가고)

79. 콜센터 근처 베이스캠프 앞. 밤

건물에서 와다다 뛰어내려오는 숙자.
멀리 재민과 풀마니가 어디론가 가는 것이 보인다.
숙자, 재빨리 뛰어가며 간격을 좁혀나가는데
어느 봉고차에 올라타는 재민과 풀마니.

숙자 : 이런 씨... !

두리번거리는 숙자, 건너편에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봉고차를 쫓는다.
뒤늦게 편의점에 갔던 자전거 주인이 숙자를 보고 놀라 쫓아온다.

자전거남 : (중국말로) 야 이 도둑놈아! 내 자전거 내놔!
숙자 : 똥이부치! 잠깐만 빌릴게! 쏘리이이이!!! (봉고차를 열심히 쫓아가며) 헉헉... 스쿠터를.... 괜히 반납했어... 헉헉...

80. 교차편집 (애림의 택시 안 + 베이스캠프)

식당에서 나오는 덩치 한 명과 호리호리한 체격의 조직원.
조직원 은 재민과 헤어스타일, 옷차림이 닮았을 뿐 재민이 아니다.
두 사람을 택시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덕희와 애림.

애림 : 진짜 아임까?
덕희 : (안타까워) ... 아냐... 잘못 봤어...

그때, 덕희의 핸드폰이 울린다.

덕희 : 어, 언니. 뭐? 천천히 말해. 천천히.
봉림 : 숙자가! 지금 손대릴 쫓아갔다니까!
덕희 : !!!

애림, 곧바로 기어를 바꿔 택시를 출발시킨다.

81. 어느 도로. 밤

숙자, 땀을 뻘뻘 흘리며 자전거로 힘겹게 봉고차를 쫓아가고 있다.
마음과 달리 점점 멀어져만 가는 봉고차.
이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숙자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만다.

숙자 : 헉헉... 헉... 음, 피 맛.... 헉헉....

82. 애림의 택시 안. 밤

핸드폰 어플에 뜬 숙자의 위치, 움직이다가 멈춰선다.
숙자에게 전화를 하는 덕희.

덕희 : 언니! 위치 거기야? 지금 멈춘데.
숙자 : 헉헉.... 헉헉....
덕희 : 여보세요?
숙자 : 헉.... 놓쳤어....

83. 어느 도로. 밤

숙자 : (침 삼키며) ... 미안해....헉헉... 아! 차번호! K 9023! 봉고!

84. 애림의 택시 안. 밤

덕희 : (적으며) 고마워! 애림이랑 나랑 찾아볼게.
애림 :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영상통화하며, 중국말로) 협회장님, 나 애림이. 봉고차 하나 수배해야 되는데 연락 좀 돌려줘요. 번호는 K 9023.
협회장 : (중국말로) K 9023. 오케이.

85. 몽타주

택시 운전사 1, 운전하다가 위챗 알림음에 보면,

“K 9023 봉고차 보신 분, 연락 요망” 메시지 뜬다.
메시지에서 화면, 여러개로 분할되며
위챗을 확인하는 칭다오의 택시기사들 모습에서

86. 칭다오 후미진 호텔 앞. 밤

택시를 세워두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택시기사 2.
보면, 호텔 앞으로 K 9023 봉고차가 서더니 재민과 톨마니가 내린다.
호텔 안에서 덩치4와 한국 대학생 8명이 캐리어를 들고 우르르 나온다.
대학생들, 봉고차에 올라타고...

덩치 4 : 자. 차례 차례. 뒤에 짐 싣고 타세요. (재민에게) 도와줘.
재민 : 아 예. (캐리어를 싣는)
톨마니 : 다 온거야?
덩치 4 : 세 명은 빵꾸. 이대로 태워가면 돼.
톨마니 : 오케이.

봉고차, 다시 움직이기
택시기사 2, 애림에게 전화를 건다.

87. 애림의 택시 안. 밤

택시기사2 : (소리, 중국말로) 봉고차 상그릴라 호텔 사거리로 이동 중.
애림 : (중국말로) 확인. 세세.

애림, 그대로 핸들을 확 꺾어 엑셀을 밟는다.
으어엇! 휘청하는 덕희.

88. 달리는 봉고차 안. 밤

대학생들은 소풍이라도 온 듯 음료수를 마시며 자기들끼리 떠들고,
재민은 조수석에, 톨마니는 운전을 하고 있다.

대학생 1 : 회사가 여기서 멀어요?
재민 : ... 별로. 가까워요.
대학생 2 : 주소 좀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자꾸 걱정하셔서...
톨마니 : 아유, 뭐가 그렇게 급해~ 다 천천히 알려줄건데...
대학생 2 : 하하, 네.
대학생 1 : 근데 진짜로 한달에 오백 주는 거 맞아요?
재민 : (표정 안 좋고)
톨마니 : (쳐다보자)

재민 : ... 기본급이 오백이고, 잘하면 인센티브도 따로 받아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하...

일동 : 와 대박! 끝!

대학생 1 : 야, 것봐. 나 따라오길 잘했지?

대학생 2 : 육개월이면 얼마야? 삼천!

좋아하는 대학생들과 달리 어두운 표정의 재민.

CUT TO :

몸을 비틀며 안절부절 못하는 대학생 1.

대학생 1 : (조수석으로 얼굴을 내밀며) 죄송한데... 잠깐만... 화장실 좀 들르면 안 될까요?

똥마니 : 좀만 참아보지. 거의 다 왔는데...

대학생 1 : 저도 그러고 싶은데... 진짜 쌀 것 같아서...

재민 : 큰 거요?

대학생 1 : 작은 거....

89. 갓길. 밤

봉고차가 서자 대학생 1이 후다닥 차에서 내린다.
재민도 따라 내려 바로 옆 으스스한 골목길로 들어간다.

90. 골목길. 밤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 대학생 1.
재민은 골목길 앞에 서서 기다린다.
그 뒤로 지나가는 애림의 택시, 스쳐 지나가는 가 싶더니
다시 방향을 바꿔 재민 쪽으로 다가온다.
그때, 대학생 1이 나오고 두 사람, 봉고차로 향하는데
애림의 택시가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뱅뱅 클랙슨을 울린다.
재민, 무시하고 가려는데

덕희 : (조수석 창문을 열고) 저기요! 한국사람 맞죠? 길 좀 잠깐만...! 택시가 자꾸 빙빙 돌아가지구!

재민 : 우리도 길 몰라요. (가려는데)

덕희 : 춘화루! 춘화루라고 여기 유명한 식당 몰라요?

재민 : (뭐지? 덕희를 물끄러미 보는데)

똥마니 : (운전석 창문으로 소리지르며) 뭐해?!

재민 : 예! (그냥 덕희 무시하고 가려는데)

덕희 : 병거지 모자! 여기 병거지 모자 파는 데 있다는데 예쁜 거 많다는데... 거긴

알아요?

재민 : (!!!) 먼저 타세요. 나 길 좀 알려드리고...

대학생 1 : 아 네. (봉고차로 가는)

재민, 택시로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재민 : ... 저 아세요...?

덕희 : (바짝 잡아당기며) 손대리. 나 덕희야 김덕희.

재민 : !!!

덕희 : 저쪽 보지 말고 길 알려주는 척해.

재민 : (몸을 숙이며 지도를 보는척 하는)

덕희 : (지도 뒤로 핸드폰과 메모지를 주며) 앞으로 이걸로 연락하구. 비밀번호는 내 핸드폰 뒤에 여섯자리. 알지?

재민 : (얼떨떨) 네... 진짜 김덕희씨예요?

덕희 : 왜? 생각보다 너무 미인이야?

91. 봉고차 안. 밤

사이드 미러로 뛰어오는 재민을 보는 톨마니.

일부러 클랙슨을 계속 누른다. 빵빵빵빵!

재민 : (서둘러 타며) 헉헉... 한국분인데 자꾸 길을 알려달라고...! 나도 길을 모르는데... 그냥 대충 얘기하고 왔어요...! 자, 이제 출발하시죠!

톨마니 : 뭐 받았어?

재민 : 예?

톨마니 : 아까 주머니에 넣은 거 뭐냐고?

재민 : (잠깐 당황) 아 그거...! (초코파이를 꺼내며) 초코파이 주던데요. 고맙다고 드실래요?

톨마니 : 됐어.

그때, 애림의 택시가 봉고차를 추월해 지나가며

덕희가 재민과 톨마니를 향해 밝게 손인사를 흔드는 것이 보인다.

톨마니 : 하여간 아줌마들 저 오지랴. 어후.

재민 : 그니까요.

재민, 창문을 바라보며 핸드폰이 든 주머니를 소중하게 감싸쥐다.

92. 콜센터 화장실. 밤

재민,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자 덕희네 가족사진이 나온다.

해맑게 웃고 있는 민지와 혼이를 보자 괜히 죄책감이 들고....

덕희가 준 메모지를 펴 보는데

덕희 : (소리) 비상연락은 이 핸드폰 쓰구. 총책이 오면 꼭 우리한테 알려줘. 전화나 카톡 둘 다 괜찮아. 그리고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 깔아놔거든? 가능하면, 총책 가방이나 차 같은데 넣어줘. 위치 추적할 수 있게. 박형사는 내일 오기로 했어. 박형사가 오면, 중국이랑 본격적으로 공조 수사할 거구, 이제 정말로 콜센터 덮칠 거야.

재민 : (메모지를 들고 안도하며 혼잣말로)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3. 교차편집 (인천공항 + 베이스캠프)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박형사.

박형사 : (출국장으로 향하며)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아니 제일 빠른 비행기가 왜 늦냐고 그럼 내가 뭐라 그러니까?

덕희 : 알았어요. 새벽 3시 도착이라고요?

박형사 : 정확하게 3시 5분요.

덕희 : 그럼 콜센터는 언제 덮치는 거예요?

박형사 : 내일 밤 작전이에요. 그건 무조건이구, 공조 수사도 허가 떨어졌어요. 거기 도 세팅하고 할테니까, 김덕희씨는 이제 숙소 가서 짐이나 싸요.

덕희 : 진짜 여기 안 지켜도 돼요?

박형사 : 예,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진짜 들어가세요. 한국 갈 준비해야죠. 나 이제 비행기 타야 되거든요? 있다 봅시다.

안으로 들어가는 박형사.

94. 중국 공안. 밤

바쁘게 팀을 꾸리고 있는 중국 공안 보이스포싱팀.

한쪽에서는 사무실 사진 자료와 제보자의 사진 등을 붙이고 있고,

팀장이 형사 둘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중국팀장 : (중국말로) 콜센터 위치 알지? 일단 너희 둘이 먼저 가서 주변부 좀 파악해. 노출 안 되게 조심하고. 총책 위치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대기.

형사들 : (중국말로) 옴!

형사들이 나가고 나면, 중국팀장이 전화를 받는다.

중국팀장 : (중국말로) 예, 연락 받으셨죠? 특공대 1개조면 될 것 같습니다. 작전은 내일 밤이고요. 회의는 한국에서 형사가 오는대로 진행할 겁니다.

95. 마사지샵. 밤

잔잔한 중국 전통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벽 한쪽에 걸려있는 옷과 병거지 모자를 지나
엎드려서 마사지를 받고 있는 총책이 보인다.
얇은 옷차림의 마사지사(30대, 여)가 총책의 등에 올라타 앉아
금가루 섞은 젤을 바르며 열심히 마사지를 하고 있고,
총책은 기분 좋은 신음을 낸다.
그때, 똑똑 노크가 들린 뒤 첸이 들어온다.

첸 : (총책에게 다가가 중국말로) 방금 프락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공안에 수사 요청이 들어왔답니다.
총책 : (중국말로) 우리 콜센터? 어디?
첸 : (중국말로) 청다오요.

총책이 손짓을 하자 마사지사가 나간다.
일어나 앉는 총책. 처음으로 총책의 얼굴이 드러난다.
옆집에서 봤을 법한 평범한 인상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없는 눈이 꺼림칙한 느낌을 준다.

총책 : (중국말로) 내 신상도 넘어갔대?
첸 : (중국말로) 아뇨. 콜센터 주소만 넘어갔답니다. 우리 조직원 중에 제보한 놈이 있다고.
총책 : (중국말로) 제보한 놈은 누구야?
첸 : (재민의 사진을 보여주며 중국말로) 이팀장이 데리고 있는 앱니다.
총책 : (소름끼치게 웃으며, 한국말로) 가지가지하네 정말...

총책, 가운을 입으며 밖으로 나간다.

96. 중국 청다오 콜센터 일각. 밤

조직원 4에게 돈을 건네고 코카인을 받는 경찰.

조직원 4 : 절대 내가 팔았다고 말하지 마.
경찰 : (확 부으며) 알았어. 좀만 더 줘. 더... 두배 줬잖아. 좀만 더 부어.
조직원 4 : 야. 지금도 많다니까...!

경찰, 아랑곳 않고 코카인을 흡입하고는 행복해한다.
조직원 4도 코카인을 흡입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치는 바람에 코카인을 바닥에 다 쏟고...

조직원 4 : 아이씨! 다 쏟았잖아!

보면, 눈을 까뒤집고 경련을 일으키는 경찰.

조직원 4 : (뺨을 때리며) 야! 야! 아이씨! 것 봐! 많다니까...! 아이씨!

경련을 하다가 죽은 듯 축 늘어지는 경찰.

조직원 4, 경찰의 코에 귀를 갖다대보기도 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경찰을 다리를 잡아 질질 끌고 가서는 구석에 대충 구겨 넣는다.

그러고는 비닐 포대 같은 걸로 경찰의 얼굴과 몸을 덮은 뒤

약을 챙겨 후다닥 도망 나간다.

97. 중국 칭다오 콜센터 사무실. 밤

문을 열고 대우와 톨마니, 재민, 덩치 1, 2, 3이 들어온다.

사무실 안에는 협박팀장과 팀원 3명이 먼저 와 있다.

대우 : 갑자기 웬 긴급소집이야?

협박팀장 : (고개를 으쓱) 나도 못 들었어. 총책이 얘기 안 하던데.

총책이란 말에 놀라는 재민, 동공이 흔들리고...

대우 : (의자에 앉으며) 그건 들었어? 첸이 엔타이에 사무실 150평짜릴 계약했다네.

협박팀장 : 그래?

대우 : 반응이 이상하네. 꼭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협박팀장 : 야. 새벽에 불려나온 것도 피곤해...

대우 : 오케이. 그럼 내가 엔타이 침 바른다? 팀장만 시발 몇 년이야, 나도 센터장 달아야지.

대우와 협박팀장, 괜히 기싸움을 하는데

재민이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사무실을 나가려한다.

톨마니 : 어디 가?

재민 : (민망해하며) 화장실... 빨리 갔다올게요. (나가는)

98. 중국 칭다오 콜센터 화장실. 밤

‘지금 총책 콜센터 오는 중’ 이라고 카톡을 보내는 재민.

99. 콜센터 근처 베이스캠프. 밤

덕희 역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카톡이 울린다.
핸드폰을 확인한 덕희, 졸고 있는 숙자를 깨운다.

덕희 : 언니, 일어나봐! 지금 총책 온대!
숙자 : 뭐어?! 총책?! 어디?
덕희 : (카톡을 보여주며) 지금 오는 중이래.
숙자 : 와씨... 박형사 말 듣고 숙소 갔으면 좇될 뻔했네. 야! 봉림 애림! 일어나! 지금 잘 때가 아니야!!
봉림,애림 : (쌍둥이같은 자세로 자다가 일어나) 뭐니? 뭔일이니?

덕희, 재민에게 카톡을 보낸다.

100. 중국 칭다오 콜센터 화장실. 밤

덕희의 카톡을 확인하는 재민.
‘당황하지 말고 작전대로.’
‘핸드폰 위치 어플 켜서 총책 가방에 넣어.’
‘무리하지는 말고.’
‘박형사 비행기 탔음.’

101. 콜센터 근처 베이스캠프.

‘노력해보겠음’ 카톡을 확인하는 덕희.

숙자 : (소리) 저기 차오는데...? 총책 찬가?

덕희 보면, 검은 봉고차 두 대가 콜센터 앞에 선다.
검은 봉고차에서 우르르 내리는 장정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고...

덕희 : 뭐야 저게...?

102. 중국 칭다오 콜센터 사무실 계단. 밤

장정들이 몸에 칼 등 연장을 빼들고 계단을 올라간다.
2층에서 졸며 보초를 서고 있던 덩치 하나가 놀라 일어나는데
도망가기 전에 붙잡혀 칼을 맞는다.

103. 중국 칭다오 콜센터 사무실. 밤

안으로 조심히 들어오는 재민.
대우는 총책에게 전화 중이다.

대우 : 저희야 계속 기다리고 있죠. 언제 오시는데요? 금방 언제요?

그때, 밖에서 으아악! 소리가 들려온다.
대우와 일동, 놀람과 동시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리고...!

대우 : (칼을 꺼내며 협박팀장에게) 뭐야 시발? 구덩이 판 거야? 어?!
협박팀장 : (봉을 꺼내며) 나도 불러서 나왔는데 어떻게 알어?!

재민은 어찌할바를 모르고 불안에 동공이 흔들리는데
곧 문이 벌컥 열리며 연장을 든 장정들이 우르르 들어온다.
서로 연장을 꺼내 싸우기 시작하며 난장판이 되고...
기함을 한 재민은 겨우 도망쳐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긴다.
싸움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재민, 슬쩍 고개를 빼내 보면, 대우가 장정의 칼에 가슴을 찔려 죽어가고 있다.
다시 황급히 몸을 숨긴 재민, 손을 달달달 떨며
덕희의 핸드폰을 꺼내 카톡을 하는데
그 순간, 책상 밑으로 누군가의 얼굴이 쑥 들어오더니 재민의 멱살을 잡아 올린다.

재민 : 으아악!

그대로 덩치에게 붙잡혀 칼을 맞는 재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여러 사람의 발에 밟히며 부서지는 핸드폰.

104. 중국 콜센터 근처 베이스캠프. 밤

콜센터 앞으로 검은 외제차 한 대가 서고...
뒤이어 출장 뷔페 트럭 2대가 승용차 뒤로 나란히 선다.
숙자는 찰칵찰칵 차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고...

덕희 : 이상해... 뭐가 잘못된 거 같애...
숙자 : 그랬음 전화를 했겠지.
봉림 : 확실히 이상하긴 해. 이 시간에 밥차가 웬말이니?
애립 : 엇, 저기 사람 내림다!

덕희, 숙자에게서 카메라를 빼앗아 zoom 당겨보는데
출장 뷔페 뒤에 주차된 롤스로이스에서 누군가 내리는데
트럭에 가려져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105. 중국 칭다오 콜센터 앞. 밤

룰스로이스에서 내린 총책과 첸.

총책 : (중국말로) 위에는 다 정리된 거지?
첸 : (중국말로) 예. 올라가셔도 됩니다.
총책 : (중국말로) 확인하고 있을 테니까 애들 실어.
첸 : (중국말로) 예.

106. 중국 콜센터 근처 베이스캠프. 밤

트럭에 가려진 총책과 첸의 모습.
병거지 모자도 어두운 색이라 잘 보이지 않는다.

애립 : 저거 병거지 모자 아임까?
덕희 : 모르겠어... 모자 갈기도 하고... 그냥 머리 갈기도 하고...
숙자 : 아이씨! 주차를 왜 저따구로 해!
봉림 : 씹씹 후후. 심호흡해라. 이럴땐수록 침착이 생명이다.
덕희 : (일어나며) 암만해도 일이 터졌어. 터진 거야!
봉림 : (팔을 들어보이며) 여기서 껴들면 팔 하나로는 안 끝난다야.
숙자 : (불잡으며) 그래, 그건 봉림이 말이 맞아. 그냥 연락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덕희 : 연락 못할 정도로 급한 상황이면?
애립 : 그래도 박형사님 연락은 기다려봐야지 않겠습니까?

덕희,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한다.
아직 박형사가 칭다오에 도착하려면 한참 남았다.

숙자 : 저새끼들 진짜 뭐하는 거야?

덕희, 다시 콜센터를 보면
첸의 지시에 따라 출장뱀페 트럭 기사들이 문을 열고
곧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우르르 나와 트럭에 올라탄다.

덕희 : ... 토끼는 거야! 언니, 저 새끼들 지금 토끼는 거야!!!

107. 중국 칭다오 콜센터 일각. 새벽

크허허헉! 소리와 함께 비닐 포대를 벗고 경찰이 벌떡 일어난다.
상황 파악이 안되는지 두리번거리다가 앓는 소리를 내며 밖으로 나간다.

108. 중국 칭다오 콜센터 숙소 안. 새벽

텅 비어 있는 방 안을 보며 머리를 긁적거리는 경찰.
이게 뭘 상황이지? 당황스럽기만 하고...

109. 중국 칭다오 콜센터 사무실. 새벽

경찰, 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린다.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훑쳐보면, 총책과 첸이 얘기 중이다.

총책 : (중국말로) 애들은?
첸 : (중국말로) 한 대는 엔타이, 한 대는 충칭으로 보냈습니다.
총책 : (중국말로) 수고했어. 깔끔하게 정리됐네.

총책, 병거지모자를 살짝 벗었다가 다시 고쳐 쓴다.
총책의 얼굴을 보는 경찰. 놀란 표정이고...
총책과 첸이 사라지자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간다.

110. 콜센터 사무실 안. 새벽

경찰, 들어가자마 으아아아 하며 주저앉는데
보면, 피범벅이된 11명의 시체가 칼, 마약 등과 뒤엉켜있다.
뒤틀음질을 치던 경찰, 시체들 사이 쓰러져있는 재민을 발견한다.

경찰 : ... 야... 야... 죽었냐? 야....

아무런 미동이 없는 재민.
경찰, 재민의 가까이에 가서 숨소리를 들어보는데 모르겠다.

경찰 : ... 아이씨, 산 거야, 죽은 거야?

경찰, 그냥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씨! 하며 자기 옷을 찢어 피 흘리는 재민의 배에 꽂 뭍는다.
그러자 정신이 살짝 돌아온 재민, 으으윽! 소리를 내고...

경찰 : ... 야. 정신 들어? 어? 이야. 너도 참 질기다 질겨.
재민 : (겨우 다죽어가는 목소리로) 으윽.... 아파.... 아파아....흐윽...
경찰 : (뭍으며) 야, 안 아프면 그게 진짜 좇된 거야.

111. 콜센터 근처 베이스캠프. 새벽

콜센터 앞의 출장뷔페 차 두 대와 총책이 탄 롤스로이스가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간다.

숙자 : 어? 간다. 가!

덕희 : 우리 쫓아가야 돼! 지금 놓치면 평생 못 잡아!

우왕좌왕하며 내려가는 네 사람.

그때, 덕희의 핸드폰이 울리고...

덕희 : (다급해 말 더듬으며) 박형사님! 지금, 지금 어디예요?

112. 교차편집 (칭다오 공항 연결통로 + 베이스캠프 계단)

연결통로를 빠져나오며 전화 통화 중인 박형사.

덕희는 베이스캠프를 내려가며 통화를 계속한다.

박형사 : 나 이제 도착했어요. 익스큐즈 미. 쏘리. (사람들을 제치고 가는) 예, 예. 상황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선불리 움직이지 말고요.

덕희 : 지금 다 도망치고 있다니까...!

박형사 : 못 도망쳐요. 자기 콜센터 놔두고 총책이 도망을 치겠어요? 그게 버는 돈이 얼마데...

덕희 : 지금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니깐,

박형사 : 공안에서도 사람 보내서 다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김덕희씨가 독단 행동하고 그러면 아예 작전을 다 망칠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숙자 : (동시에) 덕희야! 어떻게? 다시 올라가?

애림 : (동시에) 덕희언니, 어느 차 쫓아감까?

봉림 : (동시에) 이거 우짜니, 위험한 거 아니니? 덕희야.

동시에 박형사, 숙자, 애림, 봉림이 말을 쏟아내고...

그 탓에 덕희도 더욱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운데...

뷔페 트럭과 검은 롤스로이스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덕희, 자신의 뺨을 찰싹 때린다.

일순, 호들갑을 떨던 세 사람도 조용해지고...

덕희 : (결심했다 택시에 올라타며) 애림아. 저거 비싼 차 따라가자.

서둘러 애림의 택시에 타는 덕희, 숙자, 봉림.

113. 애림의 택시 안. 새벽

애림 액셀을 콕! 밟아 나가는데
갑자기 택시 앞으로 누군가 불쑥 튀어나오는 바람에
끼이익!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일동 : 으헉! 아이쿠! 뭐야?!

보면, 경찰이 택시 앞에 서 있다.

경찰 : 택시! 이유앤! 이유앤! 병원 좀 가주세요!

덕희, 뒤늦게 경찰 뒤에 엮힌 재민을 발견하고 놀라 택시에서 내린다.

덕희 : 손대리!

114. 콜센터 앞 도로. 새벽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게 엮힌 재민에게 다가가는 덕희.
경찰은 힘에 부쳐 엮고 있던 재민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덕희 : 손대리!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경찰 : (어리둥절) 한국 사람이에요?

숙자 : 봉림아. 119. 구급차부터 불러 빨리!

봉림 : (애림에게) 애림아, 119 번호 뭐니?

애림 : 내 전화할게.

덕희 : (재민의 복부를 지혈하며)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애가...! 방금까지도 카톡했는데...!

경찰 : (코를 흘쩍이며) 모르겠어요. 기절했다가 일어나니까... 숙소에 애들도 없고, 이팀장이랑 막 따가리들이랑 애도 피범벅이 돼서...

재민 : (잠깐 정신이 들어서) 으윽... 으으으... 아파.....

덕희 : 손대리. 재민아... 구급차 올 거야! 구급차! 금방 와.

재민 : (뒤통수 중얼거리는)

덕희 : (가까이 다가가면)

재민 : (겨우 핸드폰을 건넨다) ... 으으... 찍었어요...

덕희 : 알겠어. 내가 볼게.

재민 : (입을 오물오물하고)

덕희 : 괜찮아. 재민아. 말하지마.

재민 : (계속 말하려하고)

덕희 : (가까이 귀를 가져가는데)

재민 : (겨우겨우) 사기쳐서... 죄송해요... 으윽..... 아직은... 죽기 싫은데...
흐흑...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다 죄송해요...

봉림 : (뛰어와 담요를 재민에게 덮어준다)

경찰 : (숙자에게) 혹시 경찰이세요?
 숙자 : 어, 뭐 비슷해.
 경찰 : 제가 아까 총책 얼굴 봤는데... 증인 보호 같은 거 될까요?
 숙자 : 얼굴을 봤다 이거지? (파란펜을 꺼내며) 애림아! 종이! 일단은 몽타주부터
 그리고 우리 다시 얘기할까?

덕희, 박살이 난 핸드폰 비밀번호를 눌러 동영상 하나를 확인한다.
 동영상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마자
 어두운 화면 속에 질질질 끌려가는 소리가 들린다.
 재민이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듯하다.

총책 : (소리, 중국말로) 이새끼 왜 바로 죽었어? 좀 괴롭히다가 죽였어야 되는데...
 감히 제보를 해? 짜증나게. (퍽퍽 때리자 흔들리는 화면) 아니지. 거긴 너무
 인위적이야.

핸드폰 카메라가 돌아가며 총책이 모습이 보인다.
 가까스로 찍은 듯 흔들리는 화면 속 총책은 병거지 모자를 쓴 채
 버릇인 듯 시계를 찬 손을 계속해서 흔든다.

총책 : (중국말로) 좀 자연스럽게 세팅해봐. 약 때문에 싸운 것처럼.
 덕희 : 언니, 이새끼 뭐라는 거야?
 봉림 : (통역하며) 좀 자연스럽게 해봐라. 약 때매 싸운 것처럼.
 첸 : (중국말로) 이쪽에 뿌려놓을까요?
 애림 : (통역하며) 이쪽에 뿌릴까요?
 총책 : (중국말로) 그래, 훨씬 자연스럽게네. 아 티켓은 끊었지?
 봉림 : (통역하며) 그래, 자연스럽게네. 티켓은 끊었니?
 첸 : (중국말로) 예. 바로 가시면 됩니다.
 애림 : 예. 가면 됩니다.
 총책 : (중국말로) 칭다오 공항이지?
 봉림 : 칭다오 공항이지?

덕희와 모두, 칭다오 공항! 하며 서로를 쳐다본다.
 골목 뒤에서 구급차와 경찰차가 같이 달려오고 있다. 그 위로 자막 :

세 번째 제보
 2015년 8월 25일

115. 칭다오 도로, 새벽

마치 곡예를 하듯 요리조리 차들을 비켜가며 달리는 애림의 택시.

116. 애림의 택시 안. 새벽

택시 안에는 덕희, 애림, 숙자만 타고 있다.
덕희는 몽타주를 챙기며 재민이 찍은 동영상을 반복해서 본다.
동영상 속 총책의 모습, 일을 지시하고 손목 던다.
동영상에 집중한 덕희의 얼굴.

117. 중국 칭다오 콜센터 앞. 새벽

폴리스라인이 쳐져있는 현장으로 택시 한 대가 선다.
택시에서 내리는 박형사.
바디백에 시체를 넣으며 뒷수습을 하는 중국 경찰들을 보고 있는데

봉림 : (소리) 박형사님!

보면, 봉림이 손을 흔들며 다가온다.

박형사 : 누구...?
봉림 : 내 덕희 친구 봉림입니다. 여기는 손대리 친구면서 증인이고,
경찰 : (꾸벅)
박형사 : (듣는듯 마는듯) 아 예. (중국팀장 찾아 두리번거리고)
봉림 : 뉘 찾습니까?
박형사 : 제가 지금 공안 팀장님이랑 얘기도 해야되고,
봉림 : (중국말로) 팀장님! 여기 한국에서 박형사님 왔어요!

봉림의 목소리에 시신을 확인하던 중국 팀장이 박형사에게로 온다.

CUT TO :

박형사 : 잠복 안 했어요?
중국팀장 : (짜증, 중국말로) 하고 있었죠. 스탠바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출동하니까 이미 상황이 끝난 거죠.
봉림 : (듣다가) 일이 그럼 갑자기 터지지 천천히 터지니?
박형사 : 통역 좀 똑바로 좀 해줘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봉림 : (중국말로 통역해주면)
중국팀장 : (중국말로) 마약팀에서 맡기로 했어요. 저 친구도 마약팀에서 데려갈 거구.
(경찰을 가리키며)
봉림 : (한숨을 푹 쉬며) 마약팀이 여기 맡는답니다. 애도 델꼬 가고.
박형사 : 잠깐만. 마약팀요? 마약팀이 갑자기 왜 꺼?

118. 교차편집 (화성경찰서 지능팀 + 콜센터 앞)

화성경찰서와 콜센터에서 각각 통화 중인 팀장과 박형사.

팀장 : 이제부터 국제 마약팀에서 맡기로 했어. 그러게 내가 뭐랬어? 총책 못 잡는 다 그랬지? 주체넘게 나섰다가 이게 뭘 망신이야? 얼른 들어와!

박형사 : 마약은 무슨 마약이야. 꼬리 자를려고 일부러 뿌려놓은 건데. 총책 짓이에 요! 팀장님도 알잖아요!

팀장 : 알면? 어쨌든 수습은 해알 거 아냐! 칭다오까지 가서 총책 놓치고 열이나 죽었다 그러면 그게 수습이 되냐? 당장 비행기표 끊어서 와! 우린 칭다오에 간적도 없는 거야. 알아들었어?

박형사, 핸드폰을 끊고 돌아보면,
중국 팀장이 차에 타서 떠나려고 하고 있다.
뛰어가려다가 아이씨! 하고 봉림을 찾는다.
봉림은 구석에서 경찰과 마약팀 형사 한명과 함께 몽타주를 작업하고 있고...

경찰 : 눈을 좀 더 쳐지게... 아니다. 눈꼬리가 올라갔었나? 쳐졌나?

봉림 : 그래 말하든 내 통역을 어케 하니?

박형사 : (봉림을 끌고 가며)봉림씨! 잠깐만...! 내가 더 급해요! 빨리....!

봉림, 박형사를 따라간다.

CUT TO :

출발하는 중국 팀장의 차를 가로막으며 세우는 박형사.

박형사 : 총책이 칭다오 공항에 갔단 제보가 있어요. 내가 직접 갈 테니까 두 명, 두 명만 좀 붙여줘요. 지금 안 잡으면 못 잡아요, 총책.

봉림 : (동시통역하고)

중국팀장 : (중국말로) 박형사님, 나대지 좀 마세요. 당신이 한국에서나 형사지, 여기서도 형산줄 알아?

봉림 : (우물쭈물하자)

박형사 : 그냥 해요, 통역.

봉림 : 니 왜 나대니? 한국에서나 형사지 중국서도 형산줄 아니?

박형사 : 그러니까 부탁하잖아! 여긴 한국도 아니고, 내가 잡을 수도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봉림 : (중지갑스로 연신 FUCK YOU를 하며 열변을 토하며 통역하는)

중국팀장 : (당황한 듯 보이는데)

박형사 : (어설픈 중국말로)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하늘에 동이 트기 시작한다.

119. 칭다오 공항 앞. 아침

끼이이이익!!! 급정거하는 애림의 택시.
택시에서 덕희가 먼저 내려 후다닥 뛰어가고...

120. 중국 칭다오 공항 안. 아침

허겁지겁 출국장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덕희.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꽤 많은 사람들.
핸드폰을 하며 대기 중이거나 캐리어를 끌고 즐겁게 지나가고...
전광판에는 출발 예정 비행기의 시간표가 연달아 뜬다.
덕희, 경찰이 그려준 몽타주를 꺼내보는데 초등학생이 그린 듯 엉망진창이다.
나름 사람들 사이에서 총책을 찾는데 전혀 모르겠다.

덕희 : 망할... 이걸 보고 어떻게 찾으라고...! (다시 구겨 넣어버리는)

그때, 총책과 첸이 덕희의 옆을 지나가고...
덕희는 총책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대로 지나치나 싶은 순간, 총책이 버릇처럼 손을 던다.
그 모습을 본 덕희, 총책의 움직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여진다.

숙자 : (뒤늦게 뛰어와) 혁혁... 애림이는 공항경찰한테 바로 갔어.
덕희 : 언니, 저 새끼야. 저 새끼.
숙자 : 총책? 확실해?
덕희 : (고개를 끄덕끄덕)
숙자 : (허걱) 어, 어, 어떡해? 어떡해야 돼?
덕희 : 췌. 췌. 일단 따라가. 따라가면서 생각해볼게.

덕희와 숙자, 조심스럽게 총책과 첸을 따라간다.

121. 칭다오 공항 어느 카페. 아침

총책과 첸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
첸, 총책에게 아이패드로
엔타이 콜센터 사무실의 CCTV 화면을 보여준다.
열심히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

첸 : (중국말로) 칭다오 애들 엔타이로 투입시켜서 오픈했고요. 벌써 큰 건 몇 개 했습니다.
총책 : (신입들을 두들겨패는 CCTV 화면을 클릭하며, 중국말로) 신입 애들 똑바로 교육시키라고해. 이번처럼 경찰에 제보를 한다던지 허튼 수작 못 부리게.

덕희와 숙자는 그 뒷테이블에서 몰래 둘을 훑쳐보고 있다가
총책이 자신 쪽을 쳐다보자 메뉴판으로 얼굴을 확 가린다.
그때, 종업원이 덕희와 숙자에게 다가간다.

종업원 : (중국말로) 음료 뭘로 하시겠어요?
덕희 : 뭐라는 거야?
숙자 : 뭐 시키라는 거 같은데?
덕희 : (아무거나 메뉴판을 가리키며) 이거. 이거 주세요.
종업원 : (중국말로) 한 개? 두 개?
덕희 : (손가락 펴며) 둘! 둘!

종업원, 메뉴판을 가지고 가려하는데 안 놓는 덕희와 숙자.
총책은 그런 덕희와 숙자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결국, 실랑이를 벌이다가 종업원이 메뉴판을 포기하고 간다.
겨우 안심하는 덕희와 숙자.
총책, 마시던 컵을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셀프바로 간다.
셀프바에서 휴지를 집어 입을 닦고는 자연스럽게 숙자의 옆에 앉는다.
마주보고 앉는 총책과 덕희.
숙자 역시 놀라 눈이 동그래지고...
두 사람, 황급히 메뉴판을 보는척하는데

총책 : (메뉴판을 내리며) 아까부터 왜 줄줄 쫓아다녀? 응?

놀라 말을 잃은 덕희와 숙자.

총책 : (휴지를 덕희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경찰이야? 스토커야? 뭐야?
덕희 : (꿀꺽) 피해자다. 왜?
총책 : (놀라며) 뭐?
덕희 : (노려보며)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너한테.

사이. 총책, 어이가 없는지 웃는다.

총책 : 이야. 한 방 먹었네... 피해잔 생각도 못 했는데. (웃자)
덕희 : 뭐가 웃겨?
총책 : 뭐?
덕희 : 웃지 마. 기분 드러워.
총책 : (웃지만 싸늘한) ... 재밌네. 재밌어.
숙자 : (컵을 집어먹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 더, 덕희야...
덕희 : (총책을 뻔히 노려보고 있고)
총책 : 얼마야?
덕희 :

총책 : 귀 먹었어? 얼마 당했냐고. 오백? 천?
 덕희 : 삼천이백.
 총책 : (휘파람을 휘익 부는)
 덕희 : (기분이 상해서 찡그리면)
 총책 : 아줌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뭘 믿고 삼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남한테 줘? 등신같이.
 덕희 : (등신?! 열받아 노려보는데)

총책, 첸에게 손짓을 하자 첸이 가방을 건네고...
 가방에서 100달러짜리 돈다발 2개를 꺼내 책상에 올려놓는 총책.

총책 : 10만달러야. 한화로는 1억? 쯤 넘겠네.

놀라는 덕희. 숙자는 아예 입을 짝 벌리고...

총책 : 니들은 십년 일해야 이 돈 겨우 만질까 말까? 나는 시계 하나 샀다 치면 되고. 응? 아니면 이 돈으로 그냥 사람 사서 니들 둘 다 콕! 죽여버릴 수도 있고.

손을 짹 쥐는 덕희.
 숙자는 무서움에 벌벌 떠는데...

총책 : (덕희의 손에 쥐어주며) 자. 이거 줄 테니까 들러붙지 맙시다. 예? 사람 귀 찹게 하지 말라고. (심각한 덕희의 뺨을 톡톡 치며) 웃어. 남는 장사했는데.

덕희, 신경질적으로 얼굴을 핵 돌린다.
 그 모습을 본 숙자가 서둘러 돈다발을 챙긴다.

숙자 : 예, 예. 귀찮게 안 합니다! 불일 보세요!

총책과 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난다.

첸 : (중국말로) 겁주는 걸로 끝내도 괜찮을까요?
 총책 : (중국말로) 저 여자들? (비웃으며) 손을 벌벌 떨던데 뭘.

덕희, 떨리는 자신의 손을 본다.

숙자 : 저 새끼 눈이 왜 저래? 완전 미친놈 같애. 미친놈... 덕희야, 돈 얼른 챙겨. 빨리 나가자.
 덕희 : ...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숙자 : 잘했어! 잘한 거야! 저런 놈이랑은 안 엮이는 게 상책이야. 눈 봤지? 눈 돌

아간 거? 정말로 사람 사서 우리 죽일 수도 있어. 그러고 남아.
덕희 : (무언가 고민하는 눈치고)
숙자 : (돈을 챙겨 덕희의 주머니에 넣어주며) 너 이상한 생각하지마. 돈도 받았고,
 이 돈이면 빚 갚고도 훨씬 남아!

덕희, 뭔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숙자 : (붙잡으며) 너 정말 미쳤어?
덕희 : 언니, 언니 여기 있어. 나 그 새끼한테 물어볼 거 있어.
숙자 : 뭘 물어봐? 그냥 이 돈 들고 한국 가면 되는데...!
덕희 : 나도 미친 짓인 거 알아. 아는데... 근데 이대로 한국 가면 나 두고두고 쪽
 팔릴 거 같애. 남들한테 쪽팔리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나 쪽팔리면 그건 안
 되잖아.
숙자 : (계속 붙잡으며) ... 위험해. 안 돼. 나 못 놔.
덕희 : 놔줘. 나 진짜 가야돼.

사이. 숙자, 결국 손을 놓고 덕희, 총책을 향해 뛰어간다.

122. 중국 칭다오 공항 일각. 아침

공항경찰 둘을 쫓아가며 부탁하는 애림.

애림 : (중국말로) 진짜예요! 총책이 지금 공항에 있다니까요!
공항경찰1 : (중국말로) 저리 비켜요! 방해하지 말고!
공항경찰2 : (중국말로) 이거 공무집행방해예요! 체포되고 싶어요?

애림을 밀치고 가는 공항경찰들.
 그때, 숙자가 뛰어온다.

숙자 : 애림아...! (울며) 으흑흑....!
애림 : 언니 왜 그럼까?
숙자 : (울며) 덕희... 덕희 죽어어...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어.... 으흑흑!
애림 : 그게 뭔소림까?
숙자 : (울며) 덕희 죽는다고오오!!!

123. 중국 칭다오 공항 남자화장실 앞. 아침

화장실로 향하는 총책과 첸.

총책 : (중국말로) 시간 얼마 남았어?
첸 : (중국말로) 천천히 이동하시면 됩니다.

소리 : 야! 거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총책!

총책과 첩, 돌아보면 덕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다.

첩이 덕희에게 가려고 하자 천장의 감시 카메라를 가리키는 총책.

덕희, 손이 떨리지만 고개를 당당히 들고 다가가며

덕희 : (대뜸) 사기 당한 게 내 탓이냐?

총책 : 뭐?

덕희 : 사기 당한 내가 등신이나구.

총책 : (어이없는데)

덕희 : 아냐. 내 잘못 아니고, 절실한 사람들 등쳐먹는 너, 니가 잘못된 거야.

총책 : (싸늘) 그래서 어찌라고?

덕희 : (더 바짝 다가가며) 자수해. 경찰서 끌고 가버리기 전에.

총책, 어이없는지 픽 웃는데

덕희, 총책의 먹살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하고..

열받은 총책이 덕희의 팔을 확 꺾어버린다.

아악!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는 덕희.

지나가던 사람들, 덕희의 비명에 쳐다보더니

이내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지나가버린다.

첩은 괴로워하는 덕희의 얼굴을 큰 손으로 싸잡더니 그대로 화장실로 끌고 간다.

발버둥치며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덕희.

124. 중국 칭다오 공항 남자화장실 안. 아침

픽! 픽! 으악! 억!

벽에 밀쳐져 총책에게 막무가내로 맞는 덕희의 얼굴은 이미 피범벅이다.

덕희 : (괴로워하며) 자... 수해... 자수해...

총책 : (발로 복부를 차며) 안 들려. 다시 말해봐.

덕희 : 으허억! 으억!

총책 : (계속해서 발로 차며) 안 들린다니까!

덕희 : 으헉! 억!

총책, 버릇처럼 손을 흔들며 시간을 확인한다.

그러고는 괴로워하는 덕희에게 다가가 주머니를 뒤져 돈다발을 가져간다.

총책의 손을 덥석 잡는 덕희.

자꾸만 총책의 가슴팍을 파고든다.

총책 : (떼어내려하며) 왜? 막상 가져가니까 아쉬워?

덕희 : (손에 힘을 꼭주고 떨어지지 않는)

총책, 덕희를 때리며 억지로라도 손을 떼어내려 하는데
덕희, 총책의 손을 콕! 물어버린다.

총책 : 으아아아아악! 첸! 첸!

첸이 뛰어와 덕희를 떼어 놓는다.
총책, 이빨자국이 선명하게 난 손을 보고는 열이 받아
덕희의 얼굴을 발로 세게 차버린다.
얼굴을 제대로 맞고 완전히 쓰러진 덕희.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총책 : (손을 보며) 에이씨, 쫘.
첸 : (중국말로) 탑승시간 다 됐는데요.
총책 :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중국말로) 후. 가자.

총책과 첸, 화장실을 나간다.
완전히 뺨어있던 덕희,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워 앉는다.
그러고는 옷 안에 숨기고 있던 비행기 티켓과 여권을 꺼낸다.
여권을 까자 총책의 사진과 이름(오명환)이 표기돼있고...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씨익 웃는 덕희.

125. 중국 칭다오 공항 출국장 앞. 아침

총책은 승무원 앞에서 주머니를 뒤지고 있다.
뒤에 줄 서있는 승객들이 총책을 진상 보듯 쳐다보고 있고...

승무원 : (중국말로) 찾아서 다시 줄 서세요.
총책 : 분명히 챙겼는데... (하다가 손에 깨물린 자국을 보고) 이 개같은년이!

승객들을 밀치며 다시 남자화장실로 뛰어가는 총책.
첸도 총책을 따라간다.

126. 중국 칭다오 공항 남자화장실 안. 아침

헐레벌떡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총책과 첸.
보면, 덕희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앉아 킬킬대며 웃고 있다.

덕희 : (티켓과 여권을 흔들며) 왜? 뭐 잃어버렸어?
총책 : (잠시 병찔다가 침착해지며) 얼마? 얼마 더 원해?
덕희 : (중지를 세우며) 이정도? 아니다. (양 손가락 중지 세우며) 이정도?

총책 : (열받았지만 참으며 돈다발을 바닥에 던진다) 자. 마지막 기회야. 내놔.

덕희, 여권의 사진부분을 북 찢어버린다.

총책 : 하지마. 하지 말라고! 이 개같은년아! 진짜 뒤지고 싶어!!

덕희, 그대로 여권을 입에 넣고 씹어 먹는다.

뛰어가서 덕희의 입을 벌리는 총책.

덕희는 발버둥을 치며 여권을 끝까지 씹어먹고....

총책 : (때리며) 으아아아! 죽어! 죽어! 내가 니 가족! 부모! 남편!! 애새끼들까지 다 죽이고 만다!

첸 : (중국말로) 총책.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가시죠.

총책 : (폭발해서 말리는 첸을 밀며 계속 덕희를 패는) 으아아아!!

맞으면서도 웃는 덕희, 총책의 얼굴에 무언가를 집어던진다.

총책, 집어던진 것을 펴 보면, 경찰이 그린 총책의 엉망진창 몽타주다.

총책 : (뭐야 이거???)

덕희 : 명환아. 원래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나는 거야.

총책 : !!!! (뭔가 싸하고...)

그때, 우르르 총을 든 공항경찰들과 박형사가 화장실로 들이닥치고....!

중국경찰 : (중국말로) 손들고 엎드려! 바닥에 엎드려!

총책, 아이씨... 당했구나... 싶어 경찰들과 덕희를 번갈아본다.

피떡이 된 얼굴로 실실 웃고 있는 덕희.

총책, 자존심이 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양손을 드는데

중국경찰이 총책을 강압적으로 바닥에 짓누르며 수갑을 채운다.

바닥에 얼굴이 짓이겨지며 수치스러워하는 총책의 얼굴.

피범벅이 된 덕희에게 다가가는 박형사.

박형사 : 아이구... 괜찮아요?

덕희 : (침을 뱉 뱉으며) 아야야....

박형사 : (참나) 왜 이렇게 사람이 무모해요? 내가 시간 맞춰 왔으니까 망정이지! 하 마터면 진짜 큰일날뻔 했어요.

덕희 : 예, 하마터면 총책 놓칠 뻔 했죠.

박형사 : (보면)

덕희 : 내 덕분에 잡은 줄이나 알아요. 총책이 무슨 동네 잡범도 아니구. 응?

박형사 : (!!! 자신이 했던 말이라 깨갱하고...)

덕희, 일어나다가 비틀거리자
박형사가 잡아주며 덕희를 부축하려 한다.
그때,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숙자, 봉림, 애림이 들어온다.

숙자 : 내 친구라니까!
봉림 : (중국말로) 김덕희가 내 친구예요! 우리 다 관계자야!
애림 : (중국말로) 비키세요. 비켜.
숙자 : 덕희야! (박형사를 뺨 밀치며) 에잇, 저리 비켜어!

숙자, 박형사를 짐짝처럼 뺨! 밀치고는 덕희를 서둘러 부축한다.
박형사, 봉림과 애림의 등쌀에 결국 밀려나고...

숙자 : 꼴이 이게 뭐야, 이 기집애야.
봉림 : 음마야... 안 아프니?
덕희 : 피똥 샀어... 후후후...
숙자 : 아이구. 고생했다. 고생했어.
봉림 : 잘했다. 애썼어.
애림 : (중국말로) 비켜주세요. 사람 지나갑니다.
봉림 : (중국말로) 뭘 봐요? 총책 잡은 사람 참 봐요? 내 친구예요! 김덕희!

공항경찰들, 덕희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터준다.
숙자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며 화장실을 나가는데...
공항경찰들이 하나 둘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
박형사도 같이 박수를치고...
점점 커지는 박수 소리.
덕희, 어리둥절하다가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점점 눈시울이 붉어진다.
절뚝거리며 나가는 덕희의 모습에서 그 위로 자막 :

총책 검거
2015년 8월 25일

127. 비행기 퍼스트클래스. 해질 무렵

스튜어디스가 음식을 잔뜩 가지고 퍼스트 클래스로 향한다.
와인과 음식을 먹으며 신이 난 덕희, 숙자, 봉림이 보이고...

봉림 : 퍼스트 클래스는 원래 먹을 걸 이래 마이 주니?
숙자 : 걸 어떻게 알아? 나도 참인데... 야, 그래도 총책 잡은 보람이 있다. 그지?
용감한 시민 되니까 나라에서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로 딱 끊어주고!
덕희 : 끊어주긴 뭘 끊어줘? 박형사도 이코노미 타고 가는데.

먹다가 놀라는 숙자와 봉림.

숙자, 놀란 와중에 한입 더 먹고...

봉림 : 숙자야. 포크 스탑해라.

숙자 : (마지막 크게 한입 먹고 내려놓는)

봉림 : 나라에서 해준 게 아니든 그럼 이거 뉘가 끓었니?

덕희 : 내가.

봉림 : 미쳤다! 미쳤어! 니가 돈이 어딴어서!

숙자 : 승무원 언니! 여기 환불! 안 먹은 거 싹 다 환불 좀 해주세요!

숙자와 봉림, 호들갑을 떠는데 덕희, 뭔가를 척! 내놓는다.

보면, 피가 묻은 100달러짜리 돈다발이다.

덕희 : 껍값은 받아야겠더라고. 바닥에 떨어진 거 쓱 챙겼지.

잠깐 병져 있다가 까아아! 소리를 지르며 좋아하는 숙자와 봉림.

얼마야? 오만달러? 오만달러면 얼마야? 까아아아아!!!

신이 나서 돈을 세는 숙자와 봉림.

그 모습을 보며 덕희도 웃는다.

창밖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다.

노을을 보자 그동안의 고생이 눈녹듯 사라지는 듯하고...

덕희, 우아하게 와인잔을 돌리고는 한 모금 마신다.

덕희 : (행복한 얼굴로) 카.

128. 하늘 위. 해질무렵

아름다운 노을색으로 물든 하늘을 나는 비행기. 그 위로 자막 :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주인공은 화성시에서 평범하게 세탁소를 운영하던 김성자 씨다.

김성자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잡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화성동부경찰서에서 검거한 첫 번째 총책이다.

129. 몽타주

- 중국 콜센터 사무실에서 서류를 챙기는 경찰들의 모습

- 철창 안에 감금돼있던 조직원들이 풀려나는 모습.

- 인천공항에 압송된 총책과 조직원들, 기자들에 둘러싸여 연행되고...
노인 및 피해자들이 총책과 조직원들에게 계란을 던진다.

- 호프집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핸드폰으로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는 은미.
눈가를 소매로 훔치고는 다시 맥주를 서빙하러 간다.

총책은 범죄단체조직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으며

- 병원 중환자실에서 경찰에게 진술을 하는 재민의 모습.

고액 알바인줄 알고 속아 넘어간 조직원들 역시 처벌을 받았다.

- 벽에 붙어있는 1억 현상금 포스터, 너털너털해진 모습으로 바람에 펄럭거린다.

1억 현상금 포스터는 실제로 당시 경찰청에서 홍보했던 포스터다. 그러나, 지금까지 1억 원이 지급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포스터에는 깨알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각 경찰서의 예산에 따라 현상금은 상이할 수 있음.”

130. 화성시 동네 놀이터. 낮

빠르게 돌아가는 뽕뽕이에 탄 민지와 훈이, 까르르 웃으며 좋아하고...
덕희는 힘차게 뽕뽕이를 돌리고는 발라당 바닥에 드러눕는다.

덕희 : 아우... 어지러워...

민지와 훈이, 누워있는 덕희에게 가서 안긴다.

민지, 훈 : 한 번 더. 엄마 한번만 더.

덕희 : 마지막이야. 한번만 더 하고 이제 집 가야돼.

민지, 훈 : 응!

덕희, 한 번 더 뽕뽕이를 힘차게 돌린다.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덕희도 뽕뽕이에 올라타며 즐겁게 웃는다.

놀이터에서 카메라 올라가며 난개발된 화성시를 비추고...

김성자씨는 총책으로부터 합의를 제안 받았으나, 그 경우 형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합의해주지 않았다.